

동아일보 시흥군편

▶ 1922.2.24(3)5

<p>경성으로 도망한 형적이 잇서 주인을 협박하여 심오원강탈 주인을 협박하여 심오원강탈 경성으로 도망한 형적이 잇서</p>	<p>지나간 이십일일 오후 열두시경에 성곡도시흥군신동면사도리(京 畿道始興郡新東面砂道里)에서 던관조(田寬祚)(年)의 집에 었 던 나희삼십세가량식되어 보이는 청년네명이 각 손에 권총을 가 시고 돌연히 침입하여 그 권총으 도 주인의 가슴에 드러대이고 당 상 쏘아</p>	<p>죽일듯이 위협하며 나는 상해임시 정부원인즉 군자금업 마를 제공하려하며 여러가지로 협박하였는데 주인은 자기의 사 정을 말하고 현금이 없다고 여러</p>	<p>가지로 말하였으나 그들은 중시 못지 아니하고 맛참내 방안에는 찾겨 곳 수색한후 현금 십오원십 오전을 차커가지고 즉시 어디로 자취를 감초았는대 이 급보를 접 한 소관경찰서에서는 전서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을 자세히 조사한결과 그들은 모다 경성으로 도</p>	<p>도망한 형적 이잇슴으로 동서에서는 경성각경찰서에 통 지하는 동시에 방금 형사가 사방 에 출장하여 범인을 수색중이라 더라</p>
--	---	--	--	---

**시흥에 4명 권총단**

주인을 협박하여 15원을 강탈  
경성으로 도망한 형적이 잇서  
적  
지나간 21일 오후 12시경에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사도리에 사는 전관조의 집에 었던 나이 30세 가량식  
되어보이는 청년 4명이 각각 손에 권총을 가지고 돌연히 침입하여 그 권총으로 주인의 가슴에 드러대이고  
당상 쏘아 죽일 듯이 위협하며 나는 상해임시 정부원인즉 군자금 얼마를 제공하라하며 여러 가지로 협박  
하였는데 주인은 자기의 사정을 말하고 현금이 없다고 여러 가지로 말하였으나 그들은 중시 듣지아니하  
고 마침내 방안을 이곳저곳 수색한 후 현금 15전을 찾아가지고 즉시 어디로 자취를 감초았는대 이 급보를  
접한 소관경찰서에서는 전서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을 자세히 조사한결과 그들은 모다 경성으로 도망  
한 형적이잇슴으로 동서에서는 경성 각 경찰서에 통지하는 동시에 방금 형사가 사방에 출장하여 범인을  
수색중이라더라

▶ 1922.3.1

# 始興에 五名强盜

## 어제 새벽 세시경에 시흥군에 오명의 강도가 나타난대 사건

작어십팔일 오전 세시경에 시흥군 동면 봉천리 사십칠번다(始興郡東面奉天里)에 사는 김준여(金俊汝)의 집에 시골사람의 모양을 차린 다섯명의 강도가 침입하였는데 그중에 4명은 검은 두루마이를 입고 1명은 흰 두루마이를 입었으며 또 그들은 모두 검은 방한모를 썼는데 그들은 단도와 장난감권총으로 주인을 협박하고 돈을 내이라 하였으나 주인은 그 때 마침 돈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방안을 수색하다가 마침내 시가 7백여원 가량의 의복 몇 십벌을 도적하여 가지고 어대로 자취를 감추었다는대 이 급보를 접한 당시 경찰서에서는 서장이하 전 서원이 현장에서 사실을 조사하는 동시에 경성 각 경찰서로 통지하고 방금 대 활동을 계속하는 중이라더라

시흥군 동면 봉천리에 강도가 나타났다 함은 별보와 갓거리와 작어십팔일 오전 여섯시경에 통산경찰서에 서는 소관경찰서의 통지를 받고 즉시 형사가 관내에 버려서 그 범인을 경계 하든바 필경은 그 관내인 한강 통 부근에서 그 강도단의 한명을 체포하여 방금 취조중이라더라

漢江通에서  
一名逮捕  
통산서의 손에  
어제아침여섯시에

### 시흥에 5명 강도

어제 새벽 3시경에 시흥군에 5명의 강도가 나타난 대 사건 작 28일 오전 3시경에 시흥군 동면 봉천리 47번지에 사는 김준여의 집에 시골사람의 모양을 차린 5명의 강도가 침입하였는데 그중에 4명은 검은 두루마이를 입고 1명은 흰 두루마이를 입었으며 또 그들은 모두 검은 방한모를 썼는데 그들은 단도와 장난감권총으로 주인을 협박하고 돈을 내이라 하였으나 주인은 그 때 마침 돈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방안을 수색하다가 마침내 시가 7백여원 가량의 의복 몇 십벌을 도적하여 가지고 어대로 자취를 감추었다는대 이 급보를 접한 당시 경찰서에서는 서장이하 전 서원이 현장에서 사실을 조사하는 동시에 경성 각 경찰서로 통지하고 방금 대 활동을 계속하는 중이라더라

### 한강통에서 일명체포

어제아침여섯시에 통산서의 손에 시흥군동면 봉천리에 강도가 나타났다함은 별보와 갓거리와 작어십팔일 오전 여섯시 경에 통산경찰서에 서는 소관경찰서의 통지를 받고 즉시 형사가 관내에 버려서 그 범인을 경계 하든바 필경은 그 관내인 한강 통 부근에서 그 강도단의 한명을 체포하여 방금 취조중이라더라

▶ 1922.8.18

시흥 홍산에 피살체

경기도 경찰부에서 범인수색 명령  
제작 16일 오후에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그 관내 각 경찰서에 모종대 범인 수색에 대한 통지를 발하였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듯대 제작 16일 오전 두시경에 시흥군 북면 구로리 뒤에 있는 홍산이라는 산속에서 30여세 가량 되어 보이는 신사의 모양을 차린 남자 1명이 단도에 목이 찢려 무참히 사망한 것을 그곳으로 나무하러 갔던 농부가 이것을 발견하고 크게 놀내어 이 사실을 소관경찰서에 보고하였는데 동서에서는 즉시 다수한 경관이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을 조사하는 동시에 그 조사한 사실을 경기도 경찰부에 보고하였으므로 동부에서는 전기와 갖치 관내 각경찰서에 범인수색에 대한 통지를 한것이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직 비밀에 부침으로 아직 보도할 수가 없더라

始興虹山에慘殺體

경기도경찰부에서범인수색명령

제작 16일 오후에 경기도 경찰부(京畿道警察部)에서 그 관내 각경찰서에 모종대 범인 수색에 대한 통지를 발하였는데 이 제그 나우(농부)가 이 것을 발견하고 크게 놀내어 이 사실을 소관경찰서에 보고하였는데 동서에서는 즉시 다수한 경관이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을 조사하는 동시에 그 조사한 사실을 경기도 경찰부에 보고하였으므로 동부에서는 전기와 갖치 관내 각경찰서에 범인수색에 대한 통지를 한것이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직 비밀에 부침으로 아직 보도할 수가 없더라

▶ 1922.8.19

犯人은五里霧中

경찰부의 계속활동  
시흥 홍산 살인사건

시흥군북면 북로리홍산(始興郡 北面北老里虹山)에서 지난간 심복일 오친두시경에 었던 한삼 심복이가 랑되는 양복입고 청년을 칼로 죽이 어 그 근처 철도선로에 운반하여 흡사한 기차에 자살을 한모양으로 꾸며놓고 도주한 범인이 있다함은 임의 보도하였거 니와 이 급보를 들은 경기도 경찰 부(京畿道警察部)에서는 급야경 부(수野警部)가 수명의 순사를 데리고 현장에 출장하여 범인을 수색중이던 바 급야경부는 작일 오후에 도라왔는데 피 살을 당한 청년은 별로히 금전을 가진 형적도 없고 상고 할 점이 없다고 발표하였스며 었던 증거를 어더 모 방면으로 활동하는 중이라더라

범인은 오리무중

시흥 홍산 살인사건 경찰부의 계속활동  
시흥군 북면 구로리 홍산에서는 지난간 16일 오전2시경에 었던 한 30세가량되는 양복입은 청년을 칼로 죽이 어 그 근처 철도선로에 운반하여 흡사히 기차에 자살을 한 모양으로 꾸며놓고 도주한 범인이 있다함은 임의 보도

하였거니와 이 급보를 들은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급야경부가 수명의 순사를 데리고 현장에 출장하여 범인을 수색 중이던 바 급야경부는 작일 오후에 도라왔는데 피 살을 당한 청년은 별로히 금전을 가진 형적도 없고 상고 할 점이 없다고 발표하였스며 었던 증거를 어더 모 방면으로 활동을 하는 중이라더라.

▶ 1922.8.24

# 京畿水害

(이십이일밤재령지국폭연)

## 작일까지 조사된

경기도 각군 수해는 아주 드문대로 보도하면 아래와 같더라  
 보도하면 아래와 같더라  
**楊州郡** 양주군에는 왕숙천(王宿川)이 여탈자나 침수되었고  
**漣川郡** 연천군에는 동탄천(東灘川)이 침몰하여 침수되었고  
**坡州郡** 파주군에는 립진강의 이점사늘어쳐 사백여호가 침수되었고 문산포에서 장단과 개척등디로가는길이 막히었다  
**長湍郡** 당단군에는 립진강의 물이 오십오척이나늘어 세집이 떠나라고 사십오호가 침수되었고  
**始興郡** 이십삼일의 쾌한강물이 늘어쳐 시흥군 영등포에는 사십여호가 침수되었고  
**廣州郡** 광수군에는 한강지류 금량천(金良川)에 다리가떠나려가서 리천(利川)방면에 교통이 곤란해졌더라

**작일까지 조사된 경기수해**

경기도 각군 수해는 아주 드문대로 보도하면 아래와 같더라  
 시흥군 23일 이래 한강물이 늘어서 시흥군 영등포에는 40여호가 침수되었고

▶ 1922.9.6

# 五里霧中의 始興事件

## 기리의 범죄도

잠지못함이라

당시 시흥군 홍산(始興郡虹山)에서 잇따라 한해 한해 살해한 사실이 잇따라 함은 임의 보도한 바에 의해서도 경찰부(京畿道警察部)에서는 지금까지 보안(保安)의 경관이 총동원이 되어 반달이리더라

속하공중이나 범인의 총격이고 사하고 현장에서 참살을 당한 피해자의 신분과 성명도 판명되지 못하여 사건이 수색은 점점 묘연한 디경으로 못 처감으로 사회에서는 경찰의 활동을 의심하게 되었는데 경기도 경찰관내에서 금년 일월부터 록월까지 반년사이 에 범죄를 한 건수가 6천7백4십건이요 검거한 건수가 5천7백5십3건에 달하여 범죄한 총계에 비하면 482건을 체포치 못하였고 그 중에는 작년에 발생한 범죄도 금년에 이르러 체포된 것도 있음으로 금년에 발생한 범죄의 1할 이상은 체포치 못한 세움이며 범죄의 종류로 보면 살인범이 31명이고 강도가 76이고 절도가 4천5백9십1명이고 횡령이 613명이라더라.

**오리무중의 시흥사건**

기타의 범죄도 잡지 못함이 만타.  
 함차 시흥군 홍산에서 어떠한 청년 1명을 살해한 사실이 있었다함은 이미 보도한바 있거니와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지금까지 보안과의 경관이 총동원되어 반달동안이나 각 방면으로 범인을 수색하는 중이나 범인의 증거는 고사하고 현장에서 참살을 당한 피해자의 신분과 성명도 판명되지 못하여 사건의 수색은 점점 묘연한 디경으로 못 처감으로 사회에서는 경찰의 활동을 의심하게 되었는데 경기도 경찰관내에서 금년 일월부터 록월까지 반년사이 에 범죄를 한 건수가 6천7백4십건이요 검거한 건수가 5천7백5십3건에 달하여 범죄한 총계에 비하면 482건을 체포치 못하였고 그 중에는 작년에 발생한 범죄도 금년에 이르러 체포된 것도 있음으로 금년에 발생한 범죄의 1할 이상은 체포치 못한 세움이며 범죄의 종류로 보면 살인범이 31명이고 강도가 76이고 절도가 4천5백9십1명이고 횡령이 613명이라더라.

▶ 1922.10.14.

노랑진강도는 엉터리업는 거짓말

손형수는 잡혀 취조

재작 12일새벽 1시50분경에 경기도 시흥군 영등포면 로랑진리 손형수(경기도 시흥군 영등포면 노랑진리 손형수)(23)가 강도를 만나서 약간의 돈을 빼앗기었다함은 임의 보도한바이어나 용산 경찰서에서 다시 자세히 조사하여 본 즉 강도를 마짓다는 것은 엉터리업는 거짓말이요 손형수는 원래 로동자인데 그 전날 남대문영거장 짓는 공사장에서 십장에게 몇일 동안 식전을 받은 후 술을 먹고 또 집으로 도라가다가 종로에서 또 술을먹고 다른 노동자 패들과 싸워서 매를 흠신 맛고 돈을 모다 일허버리고 새벽녘에야 집으로 도라갓으나 돈 받아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는 가족에게 활말이 업스닛가 터무니업시 지금 오는 길에 한강철교에서 별안간 강도 3명이 나타나서 몽둥이로 때리고 가진 돈을 빼앗아 갔다고 꾸며 되엇더니 안에서 자던 형이 그 말을 듣고 곧 그 근처 파출소에 고발하였음으로 경찰서에서 형사가 갔을 때에도 그대로 거짓말을 한 것임으로 손형수는 관청에 거짓신고를 하였다는 죄목으로 방금 용산 경찰서에서 취조 중 이라더라.

鶯梁津強盜는

엉터리업는 거짓말  
손형수는 잡혀 취조

재작십일이일새벽 한시오십분경  
에경기도 시흥군영등포면 노랑  
진리 손형수(京畿道始興郡永登  
浦而鶯梁津里孫亨壽)가 강  
도를마커서 약간의돈을 빼앗기

잇다함은 임의 보도한바 이어나  
로방군용산경찰서에서 취조중이  
라더라

와용산경찰서에서 다시 자세히  
사하여본즉 강도를 마짓다는 것  
은엉터리업는 거짓말이요 손형  
수는 원래로동자인데 그전날남  
대문영거장짓는 공사장에서 십  
장에 몇칠동안 식전을바든후  
술을먹고 또집으로 도라가다가  
종로에서 또술을먹고 다른로동  
자 패들과싸와서 매를흠신 맛고  
돈을 모다일허버리고 새벽녘에  
야집으로 도라갓으나 돈바다가  
지고 오기를 기다리는 가족에게  
활말이 업스닛가 터무니업시지  
금오는길에 한강철교에서 별안  
간 강도세명이 나타나서 몽둥이  
로 때리고 가진 돈을 빼앗아 갔다  
고 꾸며 버이엇더니 안에서 자던  
형이 그 말을 듣고 곧 그 근처 파출  
소에 고발하였음으로 경찰서에서  
형사가 갔을 때에도 그대로 거짓  
말을한 것임으로 손형수는 관청  
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는 죄목이



# 今年稻作狀況

## 昨年보다增收豫想

일환삼부철리가 풍수될듯

피해의디대는 비교적 협소

減收地는慶南과江原

올해농작(農作)상황에대하여는  
 去年보다增收豫想外에는  
 비가많은하고 일리가 조하시  
 근년에드문 풍년일것을 예상하  
 고일환이때와 깃버하였으나 최  
 철리로부터 심이일까지 남도  
 해동풍수가있어서 洛東(洛東  
 江)지방의피해가 만났고철리  
 오일부전 심을외지은 중부  
 방의피해가 불조하였으며 선구  
 일환이철리 양일간의 풍풍으로  
 일부전까지 상당피해가 있지  
 서올해수확은 얼마간감수될  
 처못할것까지 예상되나 조선  
 해동방의 피해의대는 비교적협  
 소한일부분에 지나지 못함으로  
 전조선의수확은 별다른 큰영  
 향이없스리라 기대함후에후에  
 평동만일(秋分)후에  
 예상한일환사백을달만산관구  
 신오척이 수확될것하다는데 이  
 것을장년일수고 일환사백 달만  
 사척이후수확에 비하면 오공  
 일백척사부만 달만일환사백  
 일환삼부철리의 풍수로되 근  
 이 드문풍년이던 재작년 실수  
 일환오백삼만 달만일환 일환  
 사척에비하면 실오만 오천척  
 달만 줄일부가량의 감수라  
 비 이것을 去年보다조금각도의 수  
 확비상고와 작년의 실수고를 비  
 교하면보면다음과 같다더라

十四年 一四八八三〇九五  
 豫想高年 (此外에 陸米收穫高大約十三  
 四萬石)

△票據

道名	今年收穫豫想	昨年
京畿	一五三三五石	〇長
忠北	一三三三石	一〇
忠南	一三三三石	二〇
全北	一三三三石	四〇
全南	一三三三石	一〇
慶北	一三三三石	二〇
慶南	一三三三石	△三
黃海	一三三三石	一〇
平南	一三三三石	〇
平北	一三三三石	〇

水稻收穫高年對照

年次	收穫高
大正七年	一五、一六六、四七四
八年	一三、六四九、二二九
九年	一四、七六五、二七三

▶ 1925.9.27

### 금년 도작 상황 작년보다 풍수 예상

일환삼부철리가 풍수될 듯  
 피해의디대는 비교적 협소  
 감수지는 경남과 강원  
 금년도작 상황에 대하여는 農務部 조사에  
 의하면 유월말까지는 비가 많이 오고 일  
 기가 조해서 근년에 드문 풍년일 것을 예  
 상하였으나 철월말일부터 심이일까지  
 남도에 관풍수가 있어서 洛東江 연안의  
 피해가 만났고 철월말로부터 심월말 까  
 지는 해동지방의 관풍우로 한강연안의 농  
 작물에 피해가 없소하였으며 또 구월유일  
 철월 양일간의 폭풍으로 平南조선에 상당  
 한 피해가 있어서 금년수확은 얼마간감수  
 를 면치 못할것까지 예상되나 조선전체로  
 보아 피해의대는 협소한 일부분에 지나지  
 못함으로 전조선의 수확에는 별다른 큰영  
 향이 없스리라 기대 함후에후에 平南  
 만 일환사부 철리의 풍수로되 근년에  
 실수 일환오백삼만 달만일환 일환사  
 척에비하면 실오만 오천척 달만 줄  
 일부가량의 감수라 비 이것을 去年보다  
 조금각도의 수확비상고와 작년의 실수  
 고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더라



▶ 1925. 10. 25(2)

# 前途不安한 萬餘名生靈

## 京畿管内罹災民現況

—안양지역의 농민들이 겪고 있는 사막의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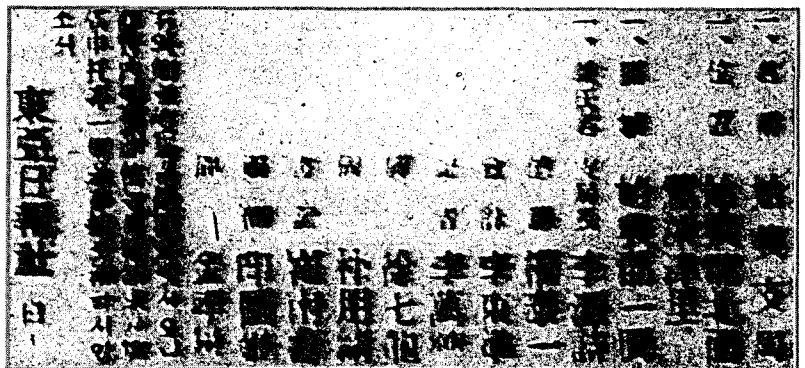
경기도 안양지역의 농민들은 전년에 비해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여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안양지역은 수해로 인하여 가옥의 유실 도피 농작물의 전멸 등 그의 피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심한곳은 대형까지 변하여 밭이 패어 바다가 된 곳도 있고 논에 모래가 밀려 산가치 된 곳도 있어서 그 때에는 다시 부락을 일운다할 지라도 살아갈 길이 엄습으로 노동자가 되어 생업을 따라 일터로 물리고 혹은 물에 일어버린 살림사리를 다시 일어킬 힘이 업서 폐허의 고향을 향방 업시 떠나는 부랑민들도 만호며 또는 미래에 또 다시 닥쳐 올 듯한 수재를 염려하여 미리 위험한 터전을 버리고 안전한 디대를 택하여 새로 한 부락을 일우는 리재민들도 만호서 수재전과 수재후의 변화는 단편으로 되어 경기도 관내에도 그와 같이 이미 변화된 것과 금후에 변화될 것을 종합하면 실로 2천6백4십8호에 1만3천8십3명이나 된다는데 그 중에는 직접간접으로 구제를 하지 않으면 닥쳐오는 추운 겨울을 살아갈 길이 업는 생명이 1만명 기량이나 된다하며 보건경찰상 악화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자가 1백8십5호에 9백5십 여명이나 된다하며 농작물의 피해로 명년 도 종자 턱이 업는 농민이 4만호 기량이나 된다더라.

추진간접이므로 구제를 하사안  
이면 다쳐야만 추운 겨울을 살아갈  
아직 살아있는 생명이 얼마남지  
가량이나 된다하며 보안경찰  
상 악화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자가 1백8십5호에 9백5십  
십여명이나 된다하며 농작물의  
피해로 명년도 종자(種子) 턱이  
엄습 농민이 사막의 기량이 나  
다더라

**전도 불안한 민어 생령**

경기도 관내 이재민 현황  
금년 여름의 큰 수해로 인하여 가옥의 유실 도피 농작물의 전멸 등 그의 피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심한곳은 대형까지 변하여 밭이 패어 바다가 된 곳도 있고 논에 모래가 밀려 산가치 된 곳도 있어서 그 때에는 다시 부락을 일운다할 지라도 살아갈 길이 엄습으로 노동자가 되어 생업을 따라 일터로 물리고 혹은 물에 일어버린 살림사리를 다시 일어킬 힘이 업서 폐허의 고향을 향방 업시 떠나는 부랑민들도 만호며 또는 미래에 또 다시 닥쳐 올 듯한 수재를 염려하여 미리 위험한 터전을 버리고 안전한 디대를 택하여 새로 한 부락을 일우는 리재민들도 만호서 수재전과 수재후의 변화는 단편으로 되어 경기도 관내에도 그와 같이 이미 변화된 것과 금후에 변화될 것을 종합하면 실로 2천6백4십8호에 1만3천8십3명이나 된다는데 그 중에는 직접간접으로 구제를 하지 않으면 닥쳐오는 추운 겨울을 살아갈 길이 업는 생명이 1만명 기량이나 된다하며 보건경찰상 악화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자가 1백8십5호에 9백5십 여명이나 된다하며 농작물의 피해로 명년 도 종자 턱이 업는 농민이 4만호 기량이나 된다더라.

▶ 1925.12.8



동아일보사 사고

▶ 1926.1.2

# 始興郡殺人事件

## 檢事活動과 事件의 表面

— 경찰이 고문하여 죽인 것은 아니라고  
전후 사실을 알 수 없는 시흥살인 사건 —

지난날 경찰이 경기도 시흥군 군  
자면(始興郡君子面)에서 살도  
방이(방) 죽인(죽인) 사형(私刑)  
하여 죽였는지 경찰의 고문(拷問)  
하여 죽였는지 자못의문의 사  
건의 잇었다(잇었다) 그보(보)한(한) 바  
나와(나와) 신구(신구)법(법)사(사)에서(에서) 그사(그사)건  
의진상(의진상)을(을) 조사(조사)하기(하기)위(위)하여(하여) 그사(그사)건  
를(를) 전(전)장(장)외(외)지(지) 출(출)장(장)사(사)하(하)였(였)는데  
진(진)과(과)군(군)자(자)면(면)의(의)란(란)곳(곳)은(은) 경(경)부(부)선(선)  
안(안)양(양)영(영)(安養縣)에서(에서) 나(나)려(려)서(서)도  
사(사)실(실)의(의)나(나)고(고) 그(그) 통(통)로(로) (通  
路)는(는) 산(산)간(간)협(협)로(로)로(로) 되(되)고(고) 죽(죽)은(은) 자(자)  
하(하) 불(불)편(편)한(한) 땅(땅)이(이) (僻地)인(인)데(데) 그(그) 자(자)  
가(가) 그(그) 곳(곳)을(을) 갖(갖)을(을) 때(때)는(는) 이(이) 미(미)원(원)과  
(元松) (元松) (元松) (元松) (元松) (元松) (元松) (元松) (元松) (元松)  
소(소)어(어)서(서) 동(동)행(행)한(한) 면(면) (田中丸)  
의(의) 사(사)의(의) 손(손)으로(로) 피(피)해(해)자(자)의(의) 시(시)태(태)  
해(해)부(부)를(를) 맞(맞)치고(고) 방(방)금(금)피(피)해(해)자(자)의(의)  
아(아)들(들)을(을) 참(참)고(고)인(인)으로(로) 신(신)문(문)하(하)는(는)  
중(중)이(이)었(었)다(다) 사(사)건(건)의(의) 내(내)容(容)은(은) 경(경)관(관)의(의) 고(고)문(문)으로(로)  
의(의) 내(내)容(容)은(은) 죽(죽)은(은) 것(것)은(은)  
업(업)는(는) 사(사)실(실)이라(라) 하(하)고(고) 기(기)실(실)은(은) 어(어)대(대)까(까)지(지) 운(운)명(명)의(의) 손(손)에(에) 놓(놓)락(락)되(되)는(는) 인  
의(의) 내(내)容(容)은(은) 죽(죽)은(은) 것(것)은(은)  
의(의) 내(내)容(容)은(은) 죽(죽)은(은) 것(것)은(은)  
의(의) 내(내)容(容)은(은) 죽(죽)은(은) 것(것)은(은)

### 시흥군 살인사건

경찰이 고문하여 죽인 것은 아니라고  
전후 사실을 알 수 없는 시흥살인 사건  
검사활동과 사건의 표면

지난 17일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에서 절도 범인을 동인들이 사형하여 죽였는지 경관  
이 고문을 하여 죽였는지 자못의문의 사건이 잇었다 함은 기보한바 잇거니와 19일  
본사에서 그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 사건 현장까지 출장식하였는데 전기  
군자면이란 곳은 경부선 안양역에서 내려서도 40여리나 되고 그 통로는 산간협로로  
써 교통이 심히 불편한 벽지인데 기자가 그곳을 갔을 때에는 이미 원고 검사원행은  
동면 주재소에서 동행한 면 중환 의사의 손으로 피해자의 시태해부를 맞치고 방금  
피해자의 아들을 참고인으로 신문하는 중이었는데 사건의 내용은 경찰의 고문으로  
죽은 듯하다는 것은 업는 사실이라 하고 기실은 어대까지 운명의 손에 놓락되는 인  
간의 옛말과 가튼 기괴한 사실이 감초여 잇다한다.

▶ 1926.2.25(4)12

### 흥동교 소인극성황

#### 興東校素人劇盛況

興東郡新東面靈雲里私立興東學  
校에서는 同地興東少年會와 聯合  
하여 舊曆正月初九日(水)에 水災以  
後一般有志者氏靈慰安을 爲去二  
十日(二月二十一日) 兩日 開演 演  
야 同校室內에서 演 演하는 素人劇  
이 잇었다는 바 當日은 觀客 數五百  
名에 達하여 大盛況을 經了하였  
다 하더라 第二日(二十一日)에도 演  
다가 少年會로부터 數十餘명의  
演員으로 一般觀衆에게 莫大한 感  
想을 주었다 하더라 觀衆으로 부터 多  
數한 回禮金이 進呈하였다 하더라  
十一時三十分 演의 萬餘三圓으로  
閉會하였다는 때 同會金은 四十餘  
圓에 達하였다 하더라 (東部)

▶ 1926.8.20(4)

# 크로스워드

## 懸賞募集

讀者慰安

### 本報始興支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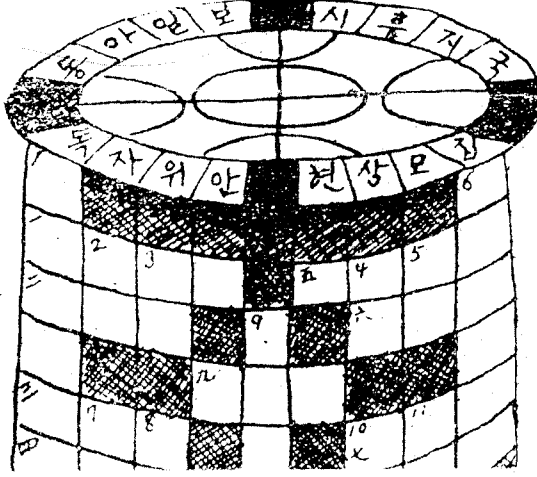
本報始興支局에서 本報讀者를 慰安하기 위하여 左記規定과 同의 懸賞 크로스워드를 募集한다. 本報에 一般讀者들은 만히 懸賞하기를 바란다더라(始興)

- 橫**
- 一、國家에서 功績에 對하여 주는 돈
  - 二、學校에 第一가는 어른
  - 三、兒孫을 工夫하도록 하는 것
  - 四、綴密하게 測度한다는 말
  - 五、釜山附近에 있는 驛名
  - 六、百에 열여섯을 加한 것
  - 七、남의 논밭짓는 사람들이 모인 團體의 名稱

- 九、學生의 成績이 好한 것은 말
- 十、萬水登浦에 있는 私塾의 名
- 十一、친기를 배운다는 말
- 十二、新東面 窩室里에 있는 私塾의 名
- 十三、十二道中의 하나
- 十四、音樂을 研究하는 사람
- 十五、가르쳐 준다라는 말
- 十六、發展한다는 意味와 같은 會名
- 十七、軍浦場에 있는 民間團體의 名
- 十八、몹시 기두런다는 말
- 十九、現代朝鮮에서 流行하는

- 縱**
- 一、軍浦에 있는 私立學校
  - 二、無慘한 事라 는 말
  - 三、돈을 벌여 준다 라는 말
  - 四、두양주란 말
  - 五、산을 걷는다 는 말
  - 六、篤梁津 恩露學校를 積極的으로 後援하는 機關
  - 七、現代文學科 其他 모든 것을 産出하는 機關
  - 八、朝鮮遊藝品中의 하나
  - 九、京仁線中 第一 驛名
  - 十、候補團에 對하는 辭名
  - 十一、을사란 이란 말
  - 十二、승차되었다는 現代의 말
  - 十三、痲痺하여 癱을 患하는 女性
  - 十四、病人 對하여는 法을 배운다는 말
  - 十五、日本의 首都
  - 十六、學生들의 年度 區分하는 말
  - 十七、宗敎家의 弟子란 말
  - 十八、始興郡에 있는 名山
  - 十九、鳥國에 對하여는 天災
  - 二十、本支局의 管轄地名
  - 二十一、客地에 잇는 俗語란 말
  - 二十二、술을 酌할 時 單말
  - 二十三、친할 時 의사의 名

- 賞品**
- 一、一人之下 五萬人之上
  - 二等 一人十二圓
  - 三等 一人六圓
  - 四等 一人三圓
- (本報 六個月分 贈讀券)  
(本報 一個月分 贈讀券各)



▽ 懸賞規定

- 一、本支局管內에 者에 限함
- 二、用紙는 本報發 封皮에 本支局號 要

申請期日 大正 十 日

申請場所 東亞

### 크로스워드 현상모집

본보시흥지국에서 본보시흥지국에서는 본보독자를 위안하기 위하여 좌기규정과 같치 현상크로스워드를 모집한다는데 일반독자들은 만히 응모하기를 바란다더라.

- 「橫」
1. 입춘일방문이나 때문에 부치는 글
  2. 국가에서 공신에게 주는 돈
  3. 학교에 제일 가는 어른
  4. 이해들 공부하도록 하는 것
  5. 치밀하게 측량한다는 말
  6. 부산부근에 잇는 역명
  7. 백에 16을 가한 것
  8. 남의 논밭짓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의 일흠
  9. 학생의 성적이 천재 갖다는 말
  10. 구 영등포에 잇는 사숙의 명
  11. 전기를 배운다는 말
  12. 신동면 잠실리에 잇는 사숙명
  13. 13도중의 하나
  14. 음악을 연구 하는 사람
  15. 가르쳐 준다는 말
  16. 발전한다는 의미와 갖흔 회명
  17. 군포장에 잇는 민간단체의 명
  18. 몹시 기두런다는 말
  19. 조선에서 유행하는 신

▶ 1926.8.22

# 지록신와트

## 懸賞募集

### 讀者慰安

#### 本報始興支局에서

本報始興支局에서는本報讀者를  
 慰安하기爲하여左記規定과가치  
 懸賞二 크로와와 一 드를募集한다  
 는데 一般讀者를 二만 圓 懸賞하기  
 를바란다(始興)

#### 橫

- 一 立春日房門우나大  
門에 붓치는 글
- 二 國家에서 功臣에게 주는 돈
- 三 學校에 第一가는 어른
- 四 兒孩를 工夫하도록 하는 것
- 五 緻密하게 測量한다는 말
- 六 釜山附近에 잇는 驛名
- 七 百어 열여섯을 加한 것
- 八 남의 손만 짓는 사 람들이 모  
친 團體의 일홈
- 九 學生의 成績이 淸채가다는  
말
- 十 術水塔浦에 잇는 私塾의 名
- 十一 진기를 배운다는 말
- 十二 新東面 羅筆里에 잇는 私  
塾名
- 十三 十三道中의 하나
- 十四 音樂을 研究하는 사람
- 十五 가르쳐 준다는 말
- 十六 發展한다는 意味와 對稱  
會名
- 十七 軍市場에 잇는 民間團體  
의 名
- 十八 몸이 가든 된다는 말
- 十九 現代 朝鮮에서 流行하는  
신

#### 縱

- 一 葛梁津에 잇는 私立  
學校

- 2 無憾한 事라는 말
- 3 돈을 빌려 준다는 말
- 4 투양수란 말
- 5 出을 전다는 말
- 6 葛梁津 國語學校는 積極的  
으로 後援하는 機關
- 7 現代文學科學其他 모든 것  
을 產出하는 機關
- 8 朝鮮 遊藝品 中의 하나
- 9 京仁線 中 第一 큰 驛名
- 10 依海담에 가는 驛名
- 11 열사 람이 람말
- 12 승차되었다는 現代의 말
- 13 讚歎하며 稱頌하는 女性
- 14 病人 死치는 法을 배운다는  
말
- 15 日本의 首府
- 16 學生들의 年度 區分 하는 말
- 17 宗教家의 弟子란 말
- 18 新興郡에 잇는 名山
- 19 鳥獸에 자 조나는 天災
- 20 本支局 管轄地名
- 21 當地에 以술 배술한다는 말
- 22 繪하고 寫한 말
- 23 淸한 면이 의사학
- 24 一人之下 萬人之上

### 賞品

一等一人十二圓

(本報一個年分購讀券)

二等一人六圓

(本報六個月分購讀券)

#### 예

- 1 근처에 잇는 사립학교
- 2 무정한 시군간 말
- 3 無恥 卑劣한 글 말
- 4 무양주란 말
- 5 산의 신다는 말
- 6 노령진 사립학교를 倣效적으로  
후원하는 기관
- 7 현대문화 과학기타 모든 것들을 산  
출하는 기관
- 8 조선 유화파 會의 하나
- 9 경인선 海 陸일 線 의 명
- 10 후작마을이란 말
- 11 10사람이 람말
- 12 승차 되었다는 現代의 말
- 13 대가하고 稱頌 하는 여성
- 14 無恥 卑劣한 卑劣 毒무란 말
- 15 眞實의 수부
- 16 曠野의 연도 구면하는 말
- 17 繪기의 제자란 말
- 18 시흥군에 잇는 명산
- 19 도구에 지조 나간 천재
- 20 本 支局 管轄지명
- 21 각지에 잇는 毒 술무란 말
- 22 繪고 寫한 말
- 23 淸한 면이 의사학
- 24 一人지하로 萬인지상

▶ 1926.10.3(4)1

# 巡迴探訪

四十九

## 文化輸入에 至極히 便利

(1)

### 京城에 連接된 始興

始興一記者

始興은 在高句麗時代仍代奴  
 云云하고 新羅時穀果라 稱하  
 고 始興 檜陽寺라고 불던 오던바  
 李朝世祖時에 果川郡과 合併하  
 야 始興郡이라 稱하였스며 其後  
 에 또 다시 果川과 分離하였던  
 니 大正三年 府郡廢合 實際에  
 安山郡 大部分과 果川郡을 合併  
 하야 果川까지 至한바 東北은  
 漢江을 隔하여서 京城府及 高陽  
 郡과 對峙하여 있고 東은 清溪山  
 으로와 廣州郡에 接하고 南은  
 水原郡에 界하였스며 西는 富川  
 郡과 南陽洞에 隔하여 金浦郡과 接  
 하였을뿐 아니라 京釜, 京仁 鐵  
 道가 郡의 中央을 貫通하여서 交  
 通이 便利하고 此外 朝鮮의 首  
 府인 京城이 隣接한關係로 新交  
 化輸入에 至極히 便利한 關係가  
 된다 그러나 漢江이 東北을 隔한  
 關係로 果川과 果川의 間에

할수 없게 된다 住民은 六萬五千  
 九百餘戶 數는 一萬二千七百  
 餘戶라는 적지 않은 食口가 사  
 는데 此를 屬別하면  
 朝鮮人 三萬戶 畝二八八  
 日本人 一萬戶 畝一五二  
 中國人 一萬戶 畝一〇二  
 計一萬二千七百六十一戶 六萬  
 五千九百五人이다

### 産業界

始興은 大概가 農民인바  
 七割以上이므로 小作農  
 이며 耕作地面積은  
 畝 七五、六二五反  
 田 六一、六七五反  
 此外에 雜地及 林野面積  
 이만이나 略하고 重要 農産物은

米	五五、三六〇石
麥	二九、五四八石
大小豆	一九、〇〇〇石
粟, 黍, 玉蜀黍 其他	一、二六九石
棉花	四八、四七二斤

**경성에 연결된 시흥 문화수입에 지극히 편리**

시흥 일기자  
 시흥은 왕고 고구려시대 임벌노라온하다가 신라시국과라 칭하  
 고 시흥규양사라고 불려 오던바 이조 세조시에 과천군과 합병  
 하여 시흥군이라 칭하였스며 그후에도 다시 과천과 분리하였섯  
 더니 대정 3년3월 부군 폐합할제에 안산군 대부분과 과천군을  
 합병하여 지금까지 지한바 동북은 한강을 격하여서 경성부급  
 고양군과 대치하여있고 동은 청계산으로써 광주군에 접하고  
 남은 수원군에 계하였스며 서는 부천군 남양해에 임하여 김포  
 군과 접하였을 뿐 아니라 경부, 경인철도가 군의 중앙을 관통  
 하여서 교통이 편리하고 따라서 조선의 수부인 경성이 인접한  
 관계로 신문화유입에 지극한 편리를 감하게 된다. 그러나 한강  
 이 동북을 격한 관계로 매년 홍수기마다 연안 일대 주민들은  
 ■■와■■■을 아니 할 수 없게된다. 주민은 6만5천 9백여호 호  
 수는 일만 이천 칠백여호라는 적지 않은 식구가 사는데 이를 구  
 별하러면 조선인 삼천삼백삼십일호 육만사천백십육인 일본인  
 삼백구십육호 일천오백사십이인 중국인 사십삼호 이백이인 계  
 일만 이천칠백 육십일호 육만오천구백오인이다.

**산업계**

시흥은 대개가 농번인바 7할이상이 모다 소작농이며 경작면적  
 은.....

▶ 1927.1.30(4)6

# 永登浦市區改正

## ◇不遠에實現될터

京畿道始興郡永登浦는京城과隣接小都市로京仁、京釜線의交通이便利한關係上比較的速度로發展되는傾向이잇슴으로神尾郡守와有志金泰漢氏等の發起로榮會를組織하고市區改正、京電電車延長電話料引下運動等으로理想的都市郡第二京城을現出하기에努力中이던바其間同面에對한여러가지複雜한問題로因하여모든計劃이그만空想에歸하였던바同面協議員金泰漢氏는同案을復舊하여서純朝鮮人本位의大都市를만들고키數日前에自宅에來訪한藤田而長과長時間協議한後다시郡當局과交渉하여不遠에實

現하도록猛烈히運動할터이라는바金泰漢氏는如左한말하더라

永登浦都市計劃事業으로市區改正을할터인데昨年에委員外지다選定되었슴은즉實現에着手하겠지요今年度豫算에纏上할것은共同洗灌場、共同便所、屠獸場設置等이외다此는朝鮮人을爲하는事業임으로斷然今年度에實施하도록努力하겠슴니다今般高級日本書記採用도前年度豫算에超過치안케다는而長의聲明이잇스나外萬一超過한다하면高級日本人書記는結局採用치못하게되겠지요(始興)

### 영등포시구개정

불원에 실현될터

(시흥) 경기도 시흥군 영등포는 경성과 연결된 소도시로 경인 경부선의 교통이 편리한 관계상 비교적속도로 발전되는 경향이 잇슴으로 신미 군수와 유지 김태집씨의 발기로 변영회를 조직하고 시구개정 경전 전차 연장 전차료 인하운동 등으로 리상적 도시군 제이경성을 현출하기에 노력 중이던 바 기간동면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하여 모든 계획이 그만 공상에 귀하였던 바 동면협의회원 김태집씨는 동안을 복구하여서 순조선인 본위의 대도시를 만들고저 수입

전에 자택에 래방한 등전면장과 장시간 협의한 후 다시 군 당국과 교섭하여 불원에 실현하도록 맹렬히 운동할 터이라는 바 김태집씨는 여좌한말하더라

영등포 도시계획 첫 사업으로는 시구개정을 할 터인데 작년에 위원까지 다 선정되었슴 즉 곧 실현에 착수 하겠지요 금년도 예산에 편상할 것은 공동세척장 공동변소 도수장설치등이외 다 차는 다조선인을 위한 사업 임으로 단연코 금년도에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슴니다 금반고급 일본서기 채용도 전년도 예산에 초과하지 않겠다는 면장의 성명이 잇스니까 만일 초과 한다면 고급일인서기는 결국 채용치 못하게되겠지요. (시흥)



▶ 1927.3.5(4)5

本會爲普及農家生活起見特設農家講習所  
 講習所之設在江津郡南門外之江津農會  
 講習所之主任由江津農會會長兼任之  
 講習所之職員由江津農會職員兼任之  
 講習所之經費由江津農會負擔之  
 講習所之開辦日期定於三月十日  
 講習所之開辦時間定於上午九時至下午五時  
 講習所之開辦地點定於江津農會  
 講習所之開辦對象定於農家子弟  
 講習所之開辦名額定於三十名  
 講習所之開辦費用定於每人十元  
 講習所之開辦手續定於三月五日以前  
 講習所之開辦手續定於江津農會

잠구 진사 강습

시흥군에서는 농가부업중의 하나인 양잠을 장려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 1927.3.24(4)1

本會爲普及農家生活起見特設農家講習所  
 講習所之設在江津郡南門外之江津農會  
 講習所之主任由江津農會會長兼任之  
 講習所之職員由江津農會職員兼任之  
 講習所之經費由江津農會負擔之  
 講習所之開辦日期定於三月十日  
 講習所之開辦時間定於上午九時至下午五時  
 講習所之開辦地點定於江津農會  
 講習所之開辦對象定於農家子弟  
 講習所之開辦名額定於三十名  
 講習所之開辦費用定於每人十元  
 講習所之開辦手續定於三月五日以前  
 講習所之開辦手續定於江津農會

조원 탈퇴운동

1927.3.28(2)9

시흥에 독감

(시흥)시흥군 영등포 일대에는 수 일전부터 급성 독감이 유행하여 매호에 한두 사람의 환자가 발생한다는데 사망자도 벌써 여러 사람 이라더라.





▶ 1927.4.19(4)5

### 始興昨年屠殺

#### 廿二萬七千餘頭

始興郡管内七個所の屠獸場에서屠殺하여全郡사람이昨年度一年 동안 먹은고기(牛豚馬)값은二萬七千九百四十八圓에達한다

는데이것을始興全人口六萬五千餘名에比하면男者老幼를勿論하고每名에年率平均三圓五錢細算이라는데屠殺된種別頭數及價格은如左하다더라(始興)

一、牝牛六〇五頭	斤量 七七、四四六斤	價格 四一、五七三圓
二、牡牛 二、三三五頭	斤量 四五七、四三三斤	價格 二八一、一三八圓
三、馬牝牡各二頭(合四頭)	斤量 五五〇斤	價格 一四〇圓
四、豚 二四〇頭	斤量 一一、七六〇斤	價格 四、九九七圓

### 시흥작년 도살 2십2만7천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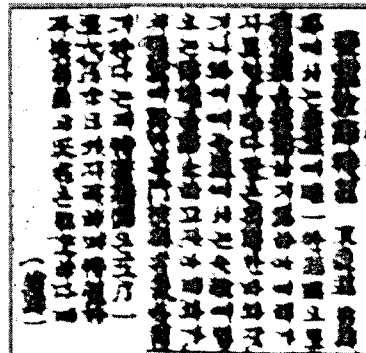
(시흥) 시흥군 관내 7개소의 도수장에서 도살하여 전 군사람이 작년도일년 동안 먹은 고기 (우돈마)값은 2십2만7천9백4십원에 달한다는데 이것을 시흥 전 인구 6만5천여명에 비하면 남자노유를 물론하고 매명에 연을 평균 3원5십전 세움이라는데 도살된 종별두수급 가격은 여좌하다더라.

▶ 1927.6.1(4)7

### 教授研究會 始興郡教育

會主催是去二十八日午前十一時에始興公立普通學校內에서郡內各公私立普通學校校長及教員三十餘名이會合하여教授研究會를開催하였다는데當日은特히京城師範學校附屬普通學校訓導末永氏를招待하여教授方法을批判指導等의研究로教育者間에만혼參考가되었더라(始興)

▶ 1927.5.28(4)5



### 始興産業講習

京畿道 始興郡에서는 産業獎勵와 文化啓發을 目的으로 各面有志數千餘名을 召集하여 지난 二十四日부터 二十七日까지 四日間武德館에서 産業講習會를 開催하고 神尾郡守以下 各郡係局과 道講師의 實際有利한 講話等의 大盛況으로 지난 二十七日 午後二時에 完了하였다더라(始興)

### 교수연구회

(시흥) 시흥군 교육회 주최로 거28일 오전11시에 시흥 공립보통학교내에서 군내 각 공립보통학교 교장급 교원 3십여명이 회합하여 교수연구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일은 특히 경성사범학교부속 보통학교 훈도 말영씨를 초빙하여 교수방법을 비판지도 등의 연구로 교육자간에 많은 참고가 되었더라









▶ 1928.1.31(4)6

◆ 始興森林組合定總 始興郡森林保護組合에서 지난 26日 午前十一時頃에 郡會議室에서 役員會를 開催하고 昭和三年度歲入歲出豫算을 原案대로 通過하였다는데 歲入歲出額은 八千八圓式이라더라(始興)

**시흥 삼림 조합 정총**

(시흥) 시흥군 삼림보호 조합에서는 지난 26일 오전 11시경에 군 회의실에서役員회를 개최하고 소화 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였는데 세입세출은 8천8원식 이라더라.

▶ 1928.2.17(3)5

少年東亞日報  
 ◇ 竹栗少年會討論會 시흥군 군자면 죽물리 소년회(始興郡 君子而竹栗里少年會)는 지난 십이월삼일에 그곳 유지 김규홍(金奎洪)씨외 7명의 주선으로 조직된 후 이래 활동하여 오던바 지난 음십오일 하오칠시부터 동회관안에서 남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는데 대성황을 이루었다더라(시흥)

**죽물 소년회 토론회**

(시흥) 군자면 죽물리 소년회(시흥군 군자면 죽물리소년회)는 지난 12월3일에 그곳 유지 김규홍씨의 제시의 주선으로 조직된 후 이래 활동하여 오던 바 지난 음15일 하오7시부터 동회관안에서 남녀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대성황을 이루었다더라.

▶ 1928.3.2(4)16

**시흥군 축산동 조합 정총**

시흥군 축산동조합에서는 거월 27일 오후3시40분부터 동군회의실에서 증전씨사회하에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하고 소화3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결의한 후 동5시반경에 무사히 폐회하였는데 동예산액은 세입세출 각 5천6백4십6원씩이라더라.

▶ 1928.3.2(4)4

◆ 始興郡農會定總 始興郡農會에서 지난 廿七日 午前十一時 半 郡會議室에서 定期總會를 開催하고 昭和三年度歲入歲出豫算을 原案대로 決議하고 午後三時半에 無事히 閉會하였다는데 同豫算額은 歲入歲出이 各一萬四千六百五十八圓式이라더라(始興)

**시흥군 농회 정총**

(시흥) 시흥군 농회에서는 지난 27일 오전 11시30분부터 동군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회장 증전씨 사회 하에 개최하고 소화 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원안대로 결의하고 오후 3시경에 무사히 폐회하였는데 동예산액은 세입세출이 각1만4천6백5십8원식 이라더라.





▶ 1928.3.29(4)3

## 始興青年會

### 去廿五日創立

始興郡永登浦에는于今外지青年會의創立이업슴을大端遺憾으로 생각한金泰漢氏外數氏의發起로 지난二十五日午前十一時頃에同地普通學校內에於始興青年會創立總會를開催하고諸般事項을決議하고左記와如히任員을選舉하고同午後二時頃에無事히閉會하였다더라(始興)

會長金泰漢、副會長李昌雲、總務洪順基、會計盧允鎭、庶務部長劉秉錫、智育部長朴鎬泳、勸農部長崔榮春、書記洪鍾華外一人外幹事四名

#### 시흥청년회거 25일 창립

(시흥) 시흥군 영등포에는 우금까지 청년회의 창립이 업슴을 대단유감으로 생각한 김태집씨의 수씨의 발기로 지난 25일 오전11시경에 동지 보통학교 내에서 시흥청소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제반사항을 결의하고 좌기의 여히 임원을 선거하고 동 오후 2시경에 무사히 폐회하였다더라. 회장 김태집 부회장 이창운 총무 홍순기 회계 노윤진 서무부장 유병선 체육부장 박호영 권농부장 최영춘 서기 홍중화 외 1인 간사4명 퇴장...

▶ 1928.4.10(4)8

## 蓮西副業組合

### 新吉里서組織

始興郡新吉里에서는尹俊文徵明丁吉榮、崔鶴賢等數氏는當로新築하여가는農村을改濟하는데는연거푸努力을要함이必要가 있다고前日前에蓮西副業組合을組織하고農事改良事業獎勵等에만은努力을하는中이라는데同으로今日에朝鮮農村에서第一簡易하고適當한組織、發達、勵氣製成等을爲期에는農繁期中에도特許時間을節約하여되남는時間을利用하여徹底히實行하고자決定하였다하며任員으로는組合長尹俊徵副組合長文徵明理事丁吉榮外數氏라더라(始興)

#### 연서부업 조합

신길리서 조직

▶ 1928.4.20(4)6

**養蠶教師配置** 京畿道  
 始興郡에서는 農家에 適當한 副業을 獎勵하고자 여러 가지로 努力하여 蠶業으로 製絲 蠶類 蠶繭等에 對한 施設과 指導를 하여 오든 中 今年에는 더욱 蠶繭을 一般化시키기 爲하야 蠶繭 巡廻 教師를 各 面에 左記와 如히 配置하고 各 家庭을 訪問하여 徹底히 蠶繭을 指導하리라는 데 而別과 教師의 氏名은 如左하다더라 (始興)

**양잠교사배치**

(시흥) 경기도 시흥군에서는 농가에 적당한 부업을 장려하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하여 올 뿐 아니라 그 중에도 제일 적당한 부업으로 제팔 재건 양계 양잠 등에 만든 시설과 지도를 하야오던 중 금년에는 더욱 양잠을 일반화시키기 위하여 양잠순회교사를 각 면에 좌기와 여히 배치하고 각 가정을 방문하아서 철저히 양잠을 지도하리라는 데 면별과 교사의 씨명은 여좌하다더라.

▶ 1928.4.25(4)10

◆ 始興郡農會定總 始興郡農會에서는 지난 廿七日 午前十一時半 府同郡會議室에 分定期總會를 會長會田氏司會下에 開催하고 昭和三年度歲入歲出豫算을 原案대로 決議하고 午後三時半頃에 無事히 閉會하였다는 데 同豫算額은 歲入歲出이 各一萬四千六百五十八圓式이라더라 (始興)

**시흥군농회정총**

**독농가등표창**

(시흥) 시흥군에서는 지난 이십일 오전 10시에 중전군수로부터 군내 독농가급 모범정농자평등의 표창식을 거행하였는데 상품은 경기도 농회로부터 수여된 것이라 하며 표창을 바든 사람은 여좌하다더라.

- 독농가 남면 당정리 양재찬
- 정농청년 동면 봉천리 이정환
- 우량면 서이면 일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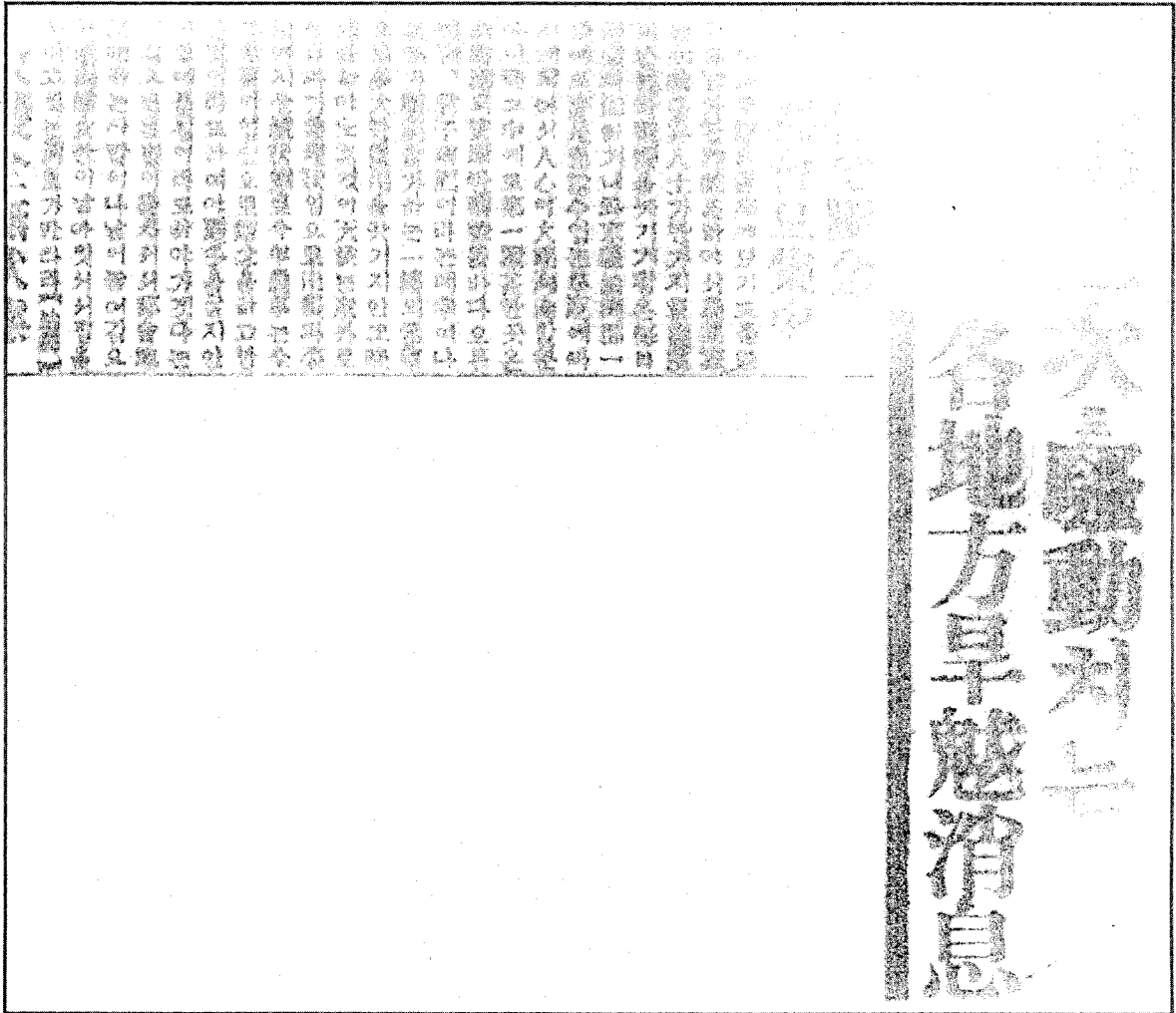








▶ 1928.8.26(4)1



**제 2차로 오동지는는 각지방한발소식**

농작업 단염 도회로 집중

▶ 1928.9.25(4)6

**시흥은 2할여 한해감수액**

경기도 시흥군의 금년 농형에 있어서서는 그간 수차보도한바와 여히 한재로 인하여서 만흔 감수를 보게되었는데 동군 농회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금년 작부반계 칠만이백반에 금추 수확예상이 50,995석으로 전 평년작에 비하면 약2할5푼 가량의 감수를 보게되리라더라.

**始興은 一割餘 旱害減收額**

京畿道始興郡의今年農形에잇시  
외는그間屢次報道한바와如히旱  
災로因하야서만흔減收를보게되  
었는데同郡農會에외調查한바에  
依하면今年作付反計七〇二〇〇  
反에今秋收穫豫想이五〇九九五  
石으로前平年作에比하면略二割  
五分假量の減收를보게되리라  
【始興】

▶ 1929.1.31(7)6

### 시흥 부천간횡행튼 강도 2명 체포

여죄도 만히 잇슬 듯 하다고  
 - 인천서에 구금 취조 중  
 (인천)지난 21일밤에 부천군 소래면 포리 잡화상 안 세용의 집에 강도 2명이 나타나서 그 주인을 결박한 후 현금73원과 기타 상품 가격 40여원어치를 강탈 도주 하였습므로 이 급보를 들은 인천 경찰서에서는 그 동안 그 범인 수사에 전력하든 바 지난 27일에 부천군 소래면 고잔리에 잠복한 것을 테포하였다는 데 그 범인은 시흥군 군자면 월곶리 452번지 김창희와 동리206번지 라사진의 2명이라 하며 인천경찰서에서 그간 엄중 취조 한 결과 그 범인은 강도범행을 한 것이 금번뿐이 아니라 작년 7월경부터 2명이 공모하고 시흥과 부천간에서 13번이나 강도범행을 한 사실이 판명되었다는데 또 여죄유무에 대하여 계속 취조 중 이라더라.

## 始興富川間橫行튼

# 強盜二名逮捕

여죄도 만히 잇슬 듯 하다고

### 仁川署에拘禁取調中

지난 이십일밤에 부천군 소래면 면월포리(始興郡君子而月里) 포리(富川郡蘇萊而浦里) 잡화상 안세용(安世鏞)의 집에 강도 2명(二名)이 나타나서 그 주인을 결박한 후 현금 73원과 기타 상품 가격 40여원어치를 강탈 도주 하였습므로 이 급보를 들은 인천경찰서에서는 그 동안 그 범인 수사에 전력하든 바 지난 27일에 부천군 소래면 고잔리에 잠복한 것을 테포하였다는 데 그 범인은 시흥군 군자면 월곶리 452번지 김창희와 동리 206번지 라사진의 2명이라 하며 인천경찰서에서 그간 엄중 취조 한 결과 그 범인은 강도범행을 한 것이 금번뿐이 아니라 작년 7월경부터 2명이 공모하고 시흥과 부천간에서 13번이나 강도범행을 한 사실이 판명되었다는데 또 여죄유무에 대하여 계속 취조 중 이라더라.

▶ 1929.2.26(4)6

## 貧民救濟事業

### 始興兩面에서

始興郡君子、秀岩兩面은 元來土地가肥沃하고農産物의生産이만홀으로始興郡의寶庫라는稱呼를바다오든바 未曾有의 昨春大旱災로시카야全境伏旱으로갓등이나窮乏하든農民들의生活이압호로어떠케나되어갈는지一般은大端히憂慮하든바前記兩面長의斡旋으로早害罹災貧民救濟會를各各兩面에서組織하고一般有志의同情을求할뿐 아니라道當局으로부터近百石의正租補助外지바닷다더라 **【始興】**

### 빈민구제 사업

시흥양면에서  
 (시흥)시흥군 군자, 수암양면은 원래 토지가 비옥하고 농산물의 생산이 만홀으로 시흥군의 보고라는 칭호를 바다오든바 미증유의 작춘 대한재로 인하여 전멸상태임으로

갓득이나 궁핍하든 농민들의 생활이 압호로어떠케나 되어 갈는지 일반은 대단히 우려하든바 전기양면장의 앞선으로 한해리재빈민구제회를 각각양면에서 조직하고 일반유지의 동정을 구할뿐 아니라 도당국으로부터근백석씨의 정조보조까지 바닷다더라







▶ 1929.6.12(4)9

**始興鞞鞞延期**  
오는식육일로

【시흥】성황이 예기되는 본사 시흥지국주최(爲梁津青年會) 후원일에 지난 11일에 개최하려던 데 2회 시흥추천대회는 당일 비가오기 때문에 오는 일요일(6월16일)로 연기하였다더라.

**시흥추천연기 오는 16일로**

(시흥) 성황이 예기되는 본사 시흥지국주최 2회 시흥추천대회는 당일 비가오기 때문에 오는 일요일(6월16일)로 연기하였다더라.

▶ 1929.6.19(3)6

**始興本支局主催 鞞鞞大會盛況**  
식육일한강인도교앞에서  
一等은驚梁津趙壽命

【시흥】본보시흥지국(本報始興支局) 주최와 노량진 청년회(爲梁津青年會) 후원일에 지난 11일에 개최하려던 데 2회 시흥추천대회는 당일 비가오기 때문에 오는 일요일(6월16일)로 연기하였다더라.

모여든 수만명의 관람자로 인산인해를 일우었고 오후 1시에 본보 지국장 조희철씨의 개회사로 막이 열리자 각 디로부터 열광적으로 참가한 40여 명의 선수들은 각각 묘기를 필사적으로 발휘하여 관중들의 마음을 더욱 도취케 할 뿐으로 점점 경기는 진행되어 예선전을 마친 후에 한시간 동안의 휴계를 리용하여 래빈중으로부터 5명을 추천으로 선명하여서 래빈경기를 하게되어 더욱 일반의 흥미를 도든 후 동 4시 20분부터 다시 계속하여 결승전을 마치니 때는 오후 6시였으며, 당선된 선수 이름은 다음과 같다.

1등 노량진 조수명  
2등 봉산유선구락부 우복만  
3등 경성부마포 정계순  
4등 한강한 전평산  
5등 경성부 침엽정 정운봉  
1등 (래빈) 경성 김익수  
\*기증된금품  
18금 시계일개 - 노량진 응금관  
대회 위원금척후 전부의점심 이봉녀  
금13원씩 장흥여 봉산 유선 구락부  
금5원씩 김정술, 고병근, 김소봉, 유진국  
금1원 이조면장  
사진은 우승기수여식광경

寄贈된金品  
十八金時計壹個 驚梁津趙壽命  
▲大會委員及斥候全部의點  
心李鳳汝 ▲金十三圓 劉錫張興汝  
鳳山遊船俱樂部 ▲金五圓 劉錫金  
正術 高炳均 金小鳳 劉錫金  
▲金一圓 李兆而長  
사진은 우승기수여식광경

**시흥 본 지국 주최 추천 대회성황**

16일 한강인도교앞에서 일등은 노량진 조수명  
(시흥) 본보시흥지국주최와 노량진 청년회 후원일에 지난 11일에 개최하려던 데 2회 시흥추천대회는 당일 비가오기 때문에 오는 일요일이고 더구나 일기가 쾌청하였으므로 목음이 무르녹은 한강인도교앞에는 원근각디로부터 모여든 수만명의 관람자로 인산인해를 일우었고 오후 1시에 본보 지국장 조희철씨의 개회사로 막이 열



▶ 1930.2.16(3)6

**始興擲柶大會 (시흥)**  
 본보시흥지국에서는 음력 정월을 만나 관내 독자를 위안하기 겸 신춘 축사대회를 오는 17일 노량진 한남루에서 개최한다. 유지제씨는 다수 참가하기를 바란다.

**시흥축사대회**

(시흥) 본보시흥지국에서는 음력 정월을 만나 관내 독자를 위안하기 겸 신춘 축사대회를 오는 17일 노량진 한남루에서 개최한다. 유지제씨는 다수 참가하기를 바란다.

▶ 1930.3.31(3)8

## 平和의農村이破滅

### 『始興黑石住民의困境』

◆ 부호에 침몰된 백여호

『시흥』시흥군북면흑석리(始興)의 부호들은 문화주택이 건설됨에 따라 別邸(別墅)黑石里에서 다량의(라) 그들의 밀려나갈 곳이 망연하다. 이들은 한유한 조선서제일가는 온야 백여호주민들은 우울과 공포에 원이 날다 하여 사오년전에 모모 차여지낸다 한다.

일본인 자본가들은 양한평에서 시가 오륙십전밖에 가지 안들 것이 삼십원이란 고가로 매수하여가지고 갱신하여 그 시험에 몰두하는 중에 아득까지 시원한 결과를 보지 못하였으나 이곳은 경성시외의 신선한 지대에 소재하여 문화주택지로 최적지라하여 지기조와 기타 유력한 일본인들은 얼마전부터 주택건축에 대한 준비에 골몰하다가 근일에 그 준비가 완성됨에 따라 우선 금년중에 42조의 주택을 건설 하리라는데 원래 흑석리라는 곳은 불과 100여호 밖에

『시흥』시흥군북면흑석리(始興)의 부호들은 문화주택이 건설됨에 따라 別邸(別墅)黑石里에서 다량의(라) 그들의 밀려나갈 곳이 망연하다. 이들은 한유한 조선서제일가는 온야 백여호주민들은 우울과 공포에 원이 날다 하여 사오년전에 모모 차여지낸다 한다.

일본인 자본가들은 양한평에서 시가 오륙십전밖에 가지 안들 것이 삼십원이란 고가로 매수하여가지고 갱신하여 그 시험에 몰두하는 중에 아득까지 시원한 결과를 보지 못하였으나 이곳은 경성시외의 신선한 지대에 소재하여 문화주택지로 최적지라하여 지기조와 기타 유력한 일본인들은 얼마전부터 주택건축에 대한 준비에 골몰하다가 근일에 그 준비가 완성됨에 따라 우선 금년중에 42조의 주택을 건설 하리라는데 원래 흑석리라는 곳은 불과 100여호 밖에

**문화주택건설로 평화의 농촌이 파멸**

부호에 침몰된 1백여호 (시흥 흑석 주민의 곤경)  
 (시흥) 시흥군 북면 흑석리에서 다량의 리움을 함유한 조선서 제일 가는 온천이 난다하여 4,5년전에 모 일본인 자본가들은 땅 한 평에 싯가 5,60전밖에 가지 안 든 것이 30원이란 고가로 매수하여 가지

고 갱신하여 그 시험에 몰두하는 중에 아 직까지 시원한 결과를 보지 못하였으나 이곳은 경성시외의 신선한 지대에 소재하여 문화주택지로 최적지라하여 지기조와 기타 유력한 일본인들은 얼마전부터 주택건축에 대한 준비에 골몰하다가 근일에 그 준비가 완성됨에 따라 우선 금년 중에 42조의 주택을 건설 하리라는데 원래 흑석리라는 곳은 불과 100여호 밖에

아니되는 한산한 농촌으로 마을 앞에 있는 약간 전답에다 전 생명을 부치고 살아 오다가 이력저력 토지를 다 팔아먹고 지금은 제터를 가진 사람이 100여호 중에 불과 10여호 밖에 되지 안함으로 자본가들의 문화주택이 건설됨에 따라 그들의 밀려나갈 곳이 망연하다하여 100여호 주민들은 우울과 공포에 싸여지낸다 한다.

▶ 1930.4.5(3)

右辭任  
東亞日報社始興支局  
李桂成  
金弘植

동아일보사 시흥지국

▶ 30.9.22

右辭任  
東亞日報社始興支局  
右辭任  
在安記 會記 會記 會記 會記 會記  
在安記 會記 會記 會記 會記 會記  
安陳 徐河金印權丁成閔金  
大泰 鎮相敏國龍利周鍾順  
天潤 龍振植鉉相粟八源達

동아일보사

▶ 1930.11.15(2)6

**農產品評會盛況** (시)  
시흥군 동면(始興郡東面)에  
서는 지난 7일 동면주최로 시흥  
공립보통학교(始興公立普通學  
校)에서 농산물품평회(農產物  
品評會)를 개최하였다는데 근래  
에 들은 모임일 뿐더러 제 2  
회 농산물품평회이니 만치 대성황을  
일우었다는 바 출품 총점수는 388  
점(入賞者數)은 88인이라는데 이  
회가 거듭함을 따라 일반농민에  
게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한다

**농산물품평회성황**

(시흥) 시흥군 동면에서는 지난 7일 동면주최로 시흥공립보통학교에서 농산물품평회를 개최하였는데 근래에 들은 모임일 뿐더러 제 2회 농산물 품평회이니 만치 대성황을 일우었다는 바 출품 총 점수는 388점으로 입상자수는 88인이라는데 이 회가 거듭함을 따라 일반농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한다.

▶ 1931.1.19(2)4

**始興의 福面強盜**  
 경기도 시흥군 동면 상도리 김홍돌의 집에 오전 1시경에 주인이 없는 사이에 복면강도가 식도를 들고 침입하여 돈을 내이라 만일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현금 20원을 강탈 도주하였다. 소관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방금 각지 범인을 염탐 중이다.

**시흥에 복면강도**

경기도 시흥군 동면 상도리 김홍돌의 집에 오전 1시경에 주인이 없는 사이에 복면강도가 식도를 들고 침입하여 돈을 내이라 만일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현금 20원을 강탈 도주하였다. 소관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방금 각지 범인을 염탐 중이다.

▶ 1931.3.3(7)5

**廿戶엔 小學校**

**百戶엔 講習所**

일본인과 조선인을 비교한  
**始興玉鈞島教育機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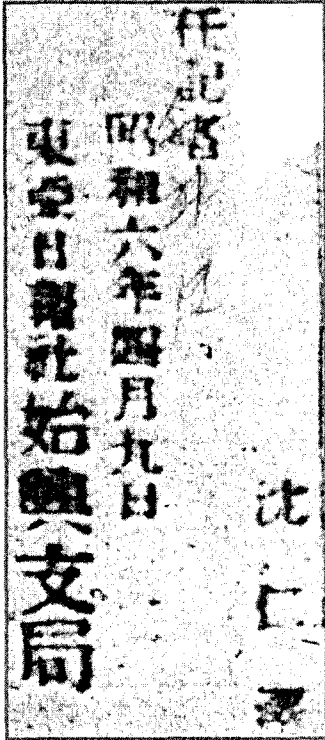
【시흥】시흥군군자면 옥구도 제씨가업기하고 강습소집도(始興郡君子面玉鈞島)에는 조선인 1백 2십5호요 일본인 21호가 거주한다 그러한대 일본인은 학생이 불과 10여명에 당당한 심상 소학교를 설립하고 있어도 조선인은 다수의 학생은 있으나 통학할 학교가 없다 이에 분발한 유지 정춘근(鄭春根) 박상운(朴尙雲)외 제씨가 우선 사숙을 설치하고 김준식(金準植)씨를 교사로 교수케 하야 다수아동에 성적이 량호하였다 여기에 더욱 힘을 얻어 작년 11월에는 더욱 힘어더 사숙제를 고쳐 오이도학술강습소라하고 당국에 신청하기로 하는 동시에 강습소 심간까지 신축하든 중 일기가 치워서 준공을 못하얏든 바 지난 24일에 정춘근 박상운외 제씨가 협의하고 강습소집도 속히 준공할뿐더러 강습소 내부도 충실케 할 계획을 세웠다하여 일반은 큰 기대를 갖고 있다한다.

**20호엔 소학교 100호엔 강습소**

일본인과 조선인을 비교한 시흥 옥구도 교육기관  
 (시흥) 시흥군 군자면 옥구도에는 조선인이 1백 2십5호요 일본인이 21호가 거주한다 그러한대 일본인은 학생이 불과 10여명에 당당한 심상 소학교를 설립하고 있어도 조선인은 다수의 학생은 있으나 통학할 학교가 없다 이에 분발한 유지 정춘근 박상운외 제씨가 우선 사숙을 설치하고 김준식씨를 교사로 교수케 하야

다수아동에 성적이 량호하였다 여기에 더욱 힘을 얻어 작년 11월에는 더욱 힘어더 사숙제를 고쳐 오이도학술강습소라하고 당국에 신청하기로 하는 동시에 강습소 심간까지 신축하든 중 일기가 치워서 준공을 못하얏든 바 지난 24일에 정춘근 박상운외 제씨가 협의하고 강습소집도 속히 준공할뿐더러 강습소 내부도 충실케 할 계획을 세웠다하여 일반은 큰 기대를 갖고 있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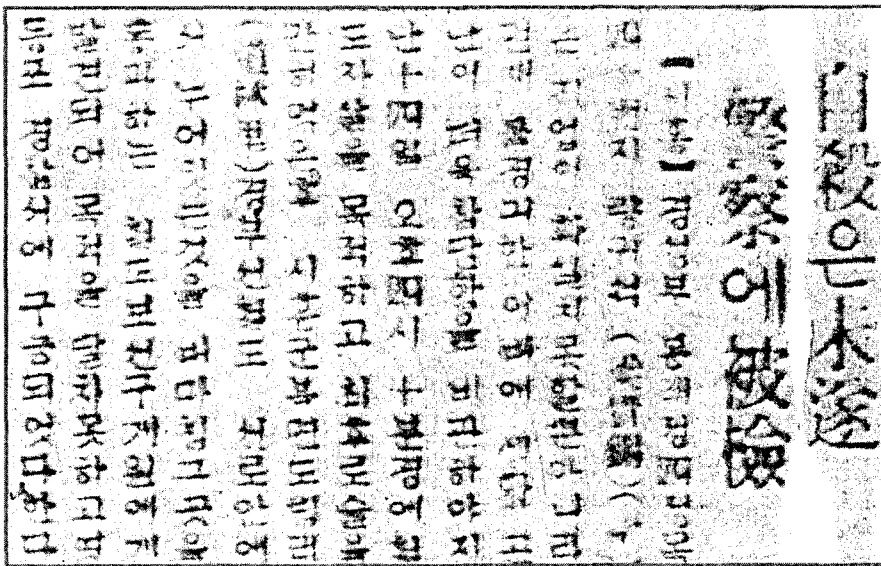
▶ 31.4.11



**주재기자**

소화 6년 4월9일 동아일보사  
시흥지국 임기자 민영식

▶ 1931.5.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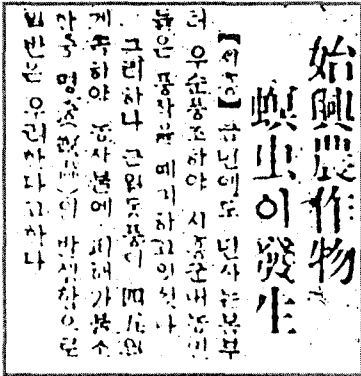


**자살은 미수 경찰에 피검**

(시흥) 경성부보래정 4정목 40번지 랑귀석은 직업이 확실치 못할 뿐 아니라 면내 물경귀한 이대에 생활 곤란이 더욱 첨담함을 비관하여 지난 14일 오후4시 10분경에 침도자살을 목적으로 최후로 술을만히 먹은후 시흥군 북면 도림리 경부선 철도 선로안에서 누워있는 것을 때마침 그곳을 통과하는 철도 보선구개원에게발견되어 목적을 달치못하고 영등포경찰서에 구금되었다한다.



▶ 1931.7.18(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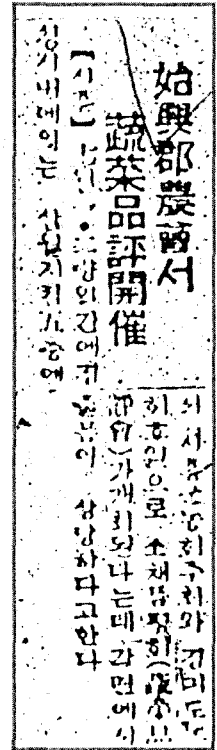
**시흥 농작물 명충이 발생**

(시흥) 금년에도 년사는 불부터 우수풍조하여 시흥군내 농민들은 풍작을 예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일 동풍이 4,5일 계속하여 농산물에 피해가 불소한중 명충이 발생함으로 일반은 우려한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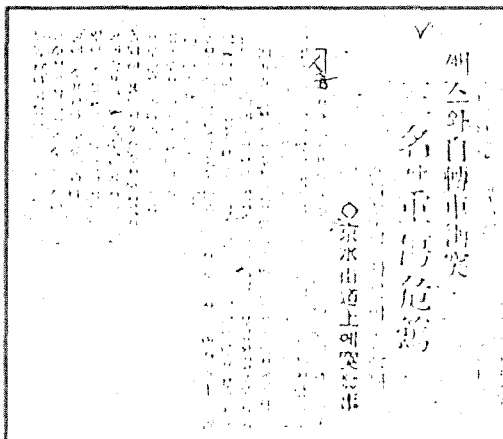
▶ 1931.7.5(5)10

**시흥군농회서 소재품평 개최**

(시흥) 7월 1·2양일간에 경성 시내에 있는 3월지점 5층에서 시흥군 농회주최와 경기도 농회 후원으로 소재품평회가 개최된다는데 각 면에서 출품이 상당하다고 한다.



▶ 1931.8.1(7)5



**경인버스와 자전거 충돌**

3명 중상위독

(시흥) 지난 29일 오전 열시 30분경에 경인버스 568호가 영등포를 떠나 경인가도 북면 반대방리 지점을 질주할 때에 마침 철도국화물자동차가 그 곳 와서 역시 경성으로 가고져 회전 할지음 불행히 피차 충돌되어 경인버스 승객 중 임경재(57), 정만제(35), 고영규(50)등 3인은 면부와 두부에 삼일 간 치료를 요할 타박상을 당하여 영등포 철도의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각 기 귀가하였다고 한다.

▶ 1931.10.3(2)10

**버스에 낙상**

시흥군 16일 오후 4시 반경에 노량진 사는 박정산의 처 이성녀가 부영버스 2010호를 타고 경성방면으로 가다가 인도교 아플 달하야 무슨 생각이 났는지 버스 진행 중 별안간 뛰어나려 일시 혼도가 되었습으로 부근에 있는 춘암의원에 입원시켜 응급키로 한 결과 약 1시 이후에 회생된바 일주일이상 치료를 요할만한 중상이라는데 원인은 미상하나 본인의 과실인 듯하다한다

**버스에 낙상**

(시흥)지난 16일 오후4시 반경에 노량진 사는 박정산의 처 이성녀가 부영버스 2010호를 타고 경성방면으로 가다가 인도교 아플 달하야 무슨 생각이 났는지 버스 진행 중 별안간 뛰어나려 일시 혼도가 되었습으로 부근에 있는 춘암의원에 입원시켜 응급키로 한 결과 약 1시 이후에 회생된바 일주일이상 치료를 요할만한 중상이라는데 원인은 미상하나 본인의 과실인 듯하다한다.

▶ 1931.10.13(2)5

**八府郡聯合 刺酒會開催**

【시흥군】조선주의 개량장려와 우량주류의 선전을 목적으로 오는 16일 오후 5시에 시내삼월지점 사중에서 시흥 부천 김포 강화 파주 장단 개풍 개성 등 팔부군 연합조선주리주회를 시흥군 주최로 개최 한다는데 일반주조업체의 기대가 만타고 한다

**팔부군연합 리주회개최**

(시흥) 조선주의 개량장려와 우량주류의 선전을 목적으로 오는 16일 오후 5시에 시내삼월지점 사중에서 시흥 부천 김포 강화 파주 장단 개풍 개성 등 팔부군 연합조선주리주회를 시흥군 주최로 개최 한다는데 일반주조업체의 기대가 만타고 한다.

▶ 1931.10.22(7)1

## 八府郡聯合 啤酒會盛況

(시흥) 시흥군 주최로 시흥 부천 김포 강화 파주 장단 개풍 개성에 팔부군이 연합하여 조선주의 개량장려와 우량주류의 선전을 목적으로 삼월지점 4층에서 리주회를 개최하였던 바 그 기일인 지난 16일 오후 6시경에 경기도 송분 지사이하 각 부군 직원급 래빈들과 주조업 조합원 등 수백명이 회합하여 식이 잇은 후 산전 회장의 식사와 송분지사의 고사며 래빈들의 축사로 경기도 내에 8부군 연합조선주리주회를 제1회로 성대히 마쳤는데 수상자의 씨명급 상품은 다음과 같다.

<p>주회 주최 1회로 성대히 마쳤는데 수상자의 씨명급 상품은 다음과 같다.</p> <p>最優等 三人 各銀壹一毫</p> <p>獎酒 李昌六 始興</p> <p>獎酒 金孫鍾 開城</p> <p>酒酒 金昌錄 始興</p> <p>優等 十六人 各銀壹一毫</p> <p>獎酒 始興李昌六 李康賢 金昌錄 水一釐 延所自寬水</p> <p>金浦河雲在 坡州李康淳</p> <p>坡州 開城金漢鍾 韓明德</p> <p>始興李昌六 長湍三和樓酒</p> <p>釀造會社</p> <p>酒酒 始興金昌錄 水一釐 延所</p> <p>所 富川金億允 金浦銀行</p>	<p>冠 江華江華釀造會社</p> <p>等二十人 各銀壹一毫</p> <p>獎酒 始興富林釀造場趙斗熙</p> <p>水泉釀造場尹茂榮 權聖大</p> <p>開豐朴佑來 坡州李福秀 金浦吳白子 元容大 江華文花仙</p> <p>坡州 開城開城釀造會社</p> <p>水泉 開豐金漢鍾 富川萬吉</p> <p>酒酒 富川李泰受 廣濟李</p> <p>江華吳仙始李基賢 金浦河雲在 開豐(吳福榮)</p> <p>等二十四人 各銀壹一毫</p> <p>等二十九人 各銀壹一毫</p>
---	---

**팔부군 연합 리주회 성황**

(시흥) 시흥군 주최로 시흥 부천 김포 강화 파주 장단 개풍 개성에 팔부군이 연합하여 조선주의 개량장려와 우량주류의 선전을 목적으로 삼월지점 4층에서 리주회를 개최하였던 바 그 기일인 지난 16일 오후 6시경에 경기도 송분 지사이하 각 부군 직원급 래빈들과 주조업 조합원 등 수백명이 회합하여 식이 잇은 후 산전 회장의 식사와 송분지사의 고사며 래빈들의 축사로 경기도 내에 8부군 연합조선주리주회를 제1회로 성대히 마쳤는데 수상자의 씨명급 상품은 다음과 같다.

▶ 1932.3.12(2)5

### 某檢文事件 六名은放免

【시흥】 지난 2월 24일 모격문사건의 혐의자로 시외 노랑진에서 청소년다수가 동대문 경찰서에 검속 되었다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그들 중에 김효선, 손덕채, 김학수, 한동익, 장인수, 김성운 등 6명은 지난 8일 오후 6시경에 무사방면이 되었다한다.

**모격문사건 6명은 방면**

(시흥) 지난 2월 24일 모격문사건의 혐의자로 시외 노랑진에서도 청소년다수가 동대문 경찰서에 검속 되었다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그들 중에 김효선, 손덕채, 김학수, 한동익, 장인수, 김성운 등 6명은 지난 8일 오후 6시경에 무사방면이 되었다한다.

▶ 1932.3.13(2)10

### 八旬記念으로 橋梁을架設

【시흥】 시흥군군자면 거모리(姑毛里)의 80세에 해당하는 김씨(金氏)는 80평생 지내온 동안 약간의 재산을 저축하여 자신의 교육비와 공역을 위하여서는 앓김업시 써오던 터인데 작년에 김씨부인의 80세에 해당한 해임으로 그의 아들 이명규씨는 이를 기념코져 삭동에 군자면 거모리 압내에 목교를 노하 일반 교통에 만흔 편의를 주던 바 금춘에 또 거모리 죽물리 간 통로중 두 곳에 세멘트로 교량을 가설하고자 근일 공사에 착수하였다는데 이것이 완성되면 린근동 거모, 죽물, 정왕 세 동리 뿐만 아니라 일반에게 또한 교통상 큰 공덕이라 하여 송성이 자자하다고 한다.

**팔순기념으로 교량을 가설**

(시흥)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 리명규씨의 모친 김씨는 80평생 지내는 동안 약간의 재산을 저축하여 자신의 교육비와 공역을 위하여서는 앓김업시 써오던 터인데 작년에 김씨부인의 80세에 해당한 해임으로 그의 아들 이명규씨는 이를 기념코져 삭동에 군자면 거모리 압내에 목교를 노하 일반 교통에 만흔 편의를 주던 바 금춘에 또 거모리 죽물리 간 통로중 두 곳에 세멘트로 교량을 가설하고자 근일 공사에 착수하였다는데 이것이 완성되면 린근동 거모, 죽물, 정왕 세 동리 뿐만 아니라 일반에게 또한 교통상 큰 공덕이라 하여 송성이 자자하다고 한다.

▶ 1932.6.12

지난 9일 오후 1시경에 시외로  
 양진북흥촌 市外 陽津 北興村

# 妙齡女自殺

【시흥】

김점식이(金점식) 처 서양순(徐洋  
 순)의 이 큰 집안의 아들이며  
 그의 처상을 저수하고 자살한  
 것은 그의 친정의 자기의 행위가  
 더 양심할만한 것이라 생각  
 하는 일종의 자살의 행위라  
 하는 것이다. 그 집안에는 항상  
 풍파가 끈이지를 아니하다가  
 근자에는 수삼일을 연속하여  
 싸워섰는데 죽기 전날에는  
 밤중에 돈 십전을 김점식이  
 주고 자기 친정인 부평으로  
 가라한 일이 있다는데 그 먹고  
 죽은 아편 출처를 알고져  
 경찰당국에서는 엄중 조사중  
 이라 하며 일반 동민들은  
 그녀자의 불쌍한 정사에  
 많은 동정을 두어 물의가  
 분분하다고 한다.

**요령어 사실**

【시흥】 지난 9일 오후 한시경에 시외 로양진 북흥촌 김점식 처 서양순이는 다량의 아편을 먹고 이 세상을 저주하고 죽었다 하는데 그는 친성이 자기 이름과 같이 양순할뿐더러 범백이 다얌전하야 일중에 청송이 만 하나 무슨 일인지 그 집안에는 항상 풍파가 끈이지를 아니하다가 근자에는 수삼일을 연속하여 싸워섰는데 죽기 전날에는 밤중에 돈 십전을 김점식이 주고 자기 친정인 부평으로 가라한 일이 있다는데 그 먹고 죽은 아편 출처를 알고져 경찰당국에서는 엄중 조사중이라 하며 일반 동민들은 그녀자의 불쌍한 정사에 많은 동정을 두어 물의가 분분하다고 한다.

▶ 1932.8.12(7)9

# 蠶室里의 生命線

## 防坡林을 拂下!

### 리권자의 金후 태도에

### 住民의 不安 頗 沸騰

【시흥】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 경기도로부터 그 지방의 보안방  
 (始興郡新東面蠶室里) 백여호대 침으로 방파림(防坡林)을 상당  
 촌은 한강 연안에 잇서도 아모케 한장거리에 조림하여 왔으므로  
 방이업서서 년년히 홍수때에는 그후로는 홍수때에 주민들에게  
 참담한 위경을 면키가 어려웠다. 큰위안과 보호가 될뿐더러 인근  
 그리하여 일반 주민들은 위급할 지방에는 일대 풍치림(風致林)  
 벼는 이곳에서 다시는 아니 살겠이 되여 잇습은 사실임에도 불구  
 다고 맹세하고도 날만 개이면 하고 군당국으로서는 무슨 선후  
 자연이 직업의 속박으로 어찌할 책이 있는 지 알수업스나 이 방파  
 수업시 살아오든 위험한 지대이 림을 불하 처분을 한다 하야 일반  
 다 그림으로 거금 20여년 전에 주민들은 만일 당국으로서 무조

#### 잠실리 생명선 방파림을 불하

리권자의 금후 태도에 주민의 불안과 비등

(시흥)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 백여호 대촌은 한강 연안에 잇서도 아무 제방이 업서서 년  
 년히 홍수 때에는 참담한 위경을 면키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일반 주민들은 위급할 때는  
 이곳에서 다시는 아니 살겠다고 맹세하고도 날만 개이면 자연히 직업의 속박으로 어찌 할  
 수 업시 살아오든 위험한 지대이다. 그러므로 거금 20여년 전에 경기도로부터 그 지방의  
 보안 방침으로 방파림을 상당한 장거리에 조림하여 왔으므로 그 후로는 홍수때에 주민들  
 에게 큰 위안과 보호가 될뿐더러 인근 지방에는 일대 풍치림이 되어 잇습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군당국으로서는 무슨 선후책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방파림을 불하처분 한다  
 하야 일반 주민들은 만일 당국으로서 무조건 하에 이 방파림을 불하앗다가는 리권자로 수  
 림을 작별하게 되면 우리들에게는 사회의 문제라 하야 중대시하고 잇다한다.

건하에 이 방파림을 불하 하얏다  
 가는 리권자로서 수림을 작별하  
 게 되면 우리들에게는 사회의 문  
 제라 하야 중대시하고 잇다한다

▶ 1932.10.23(2)9

# 始興畚中에서 手榴彈爆發

## 한동안 경찰이 일대소동 農夫一名失明重傷

(한동안)의 한 농부 김삼만이 (한동안)의 한 경찰 김영계의 4남 김삼만이 자기의 눈에 나가 벼를 비려하다가 눈 가운데 수류탄이 떨어져있음을 발견하고 하도 이상하여 담배불로 심지에 불을 다려 노릇던바 그 즉시로 폭발되어 크게 화상을 당하였다한다. 그 까닭에 두 눈이 실명되고 수족이 모두 상하였으며 얼굴도 몹시 상하여 방금 적십자병원에서 치료중이라 한다. 금22일야 안등기사가 확실히 감정한 결과 미리서 놀래어든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고 전번 육군 연습때 뛰어난 육군연습용 수류탄인 것이 판명되었다 한다.

### 시흥담중에서 수류탄폭발

한동안 경찰이 일대소동

농부 1명 실명중상

동경방면에서 적색「테로」단의 은행습격사건이 잇슨 이 후 조선의 경찰들도 시절이 시절이라 그방면에 대한 경계가 엄중한이때에 시흥군 북면 구로리에서 수류탄한개가 터져서 청년 한명이 중상을 당하였으므로 총독부 경무국에서는 크게긴장되어 보안과의 안등 기사로 하아금 동수류탄과 그 부근의 정세를 조사케 한 일이 있었다 한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지난 20일 오후 1시경

인데 전기한 구로리 2백18번지 김영계의 4남 김삼만이 자기의 눈에 나가 벼를 비려하다가 눈 가운데 수류탄이 떨어져있음을 발견하고 하도 이상하여 담배불로 심지에 불을 다려 노릇던바 그 즉시로 폭발되어 크게 화상을 당하였다한다. 그 까닭에 두 눈이 실명되고 수족이 모두 상하였으며 얼굴도 몹시 상하여 방금 적십자병원에서 치료중이라 한다. 금22일야 안등기사가 확실히 감정한 결과 미리서 놀래어든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고 전번 육군 연습때 뛰어난 육군연습용 수류탄인 것이 판명되었다 한다.

▶ 1932.11.14(4)

任記者 金 泰 榮  
 昭和七年十一月四日  
 東亞日報社 始興支局

동아일보사고 임기자 김태영

소화 7년11월4일  
동아일보사 시흥지국

▶ 1933.1.26(3)

# 秀岩 君子間 橋梁工事着手

【시흥】시흥군수암면 수암면연하야 완전한도로의 가치를 갖 (始興郡秀岩面而秀岩面)로 부터 지못한도로 자연교통신 막대한 (간자면기모면) (간자면기모면) 외 영향올바더 지방발전의 지장이 지연장 리三斗 청기의 등외 불소하였더니 지난 20일 시흥 도로공사 는 소화六日七월경 부 군외시용공사 에 대하여 총공사 라 一 萬餘元 지 兩萬餘元을 두고 비 九 萬餘元으로 兩萬餘元은 兩 萬餘元의 兩萬餘元의 지방의 발전을 위하여 (兩萬餘元) 모의기로 착수하였던 의 하야 부단한 노력의 부역으로 다하며 일간공사에 착수하여 준공은 하얏스나 도로구간 내의 허다한 암거와 교량등 공사는 공사비 외 허다한 암거와 교량등 공사는 공사비 외 관계로 약 2년 가 이나 천연하여 완전한도로의 가치를 갖지 못함으로 자연 교통 상 막대한 영향을 바더 지방발전의 지장이 불소하였더니 지난 20일 시흥군에서 동공사에 대하여 총 공사비 5천9백원으로 용산 사는 포월모에게로 낙찰이 되었다 하며 일간공사에 착수하여오는 4월내로 완전한 준공을 보리라한다

### 수암군자간 교량공사착수

시흥군 수암면 수암리로부터 군지면 거모리까지 연장2리 32점가의 등의 도로 공사는 소화6년 7월경 부터 12월까지 2년동안을 두고 양면의 면민들은 지방의 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의 부역으로 준공은 하얏으나 도로구간 내에 허다한 암거와 교량등 공사는 공사비 외 관계로 약 2년 가 이나 천연하여 완전한도로의 가치를 갖지 못함으로 자연 교통 상 막대한 영향을 바더 지방발전의 지장이 불소하였더니 지난 20일 시흥군에서 동공사에 대하여 총 공사비 5천9백원으로 용산 사는 포월모에게로 낙찰이 되었다 하며 일간공사에 착수하여오는 4월내로 완전한 준공을 보리라한다.

▶ 1933.1.27(3)4

다... (Vertical text in the left column of the fire incident report)

始興에 火災  
 (시흥) 지난 25일 오후 10시 15분에 시흥군 북면 본동리 가가 불을 피다가 실화하여 불은 때마침 서북풍을 응하여 화재가 맹렬하려 할때 로랑진 소방활동으로 다행히 초가 여섯간만을 태우고 동 1시경에 진화하였다고 한다.

### 시흥에 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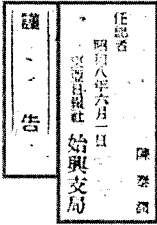
지난 25일 오후 10시 15분에 시흥군 북면 본동리 가가 불을 피다가 실화하여 불은 때마침 서북풍을 응하여 화재가 맹렬하려 할때 로랑진 소방활동으로 다행히 초가 여섯간만을 태우고 동 1시경에 진화하였다고 한다.







▶ 1933.6.8(3)12



**고**

임기자진태운  
소화팔년유월일일  
동아일보사 시흥지국

▶ 1933.10.17조(5)8

**蠶室里脚戲大會** [시흥]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始興郡新東面蠶室里)는 조선고래로 씨름에 유명한 역사를 가진 지방이다. 겸하여 금년에 시화년풍환을 만나 자축하는 의미에서 동민주최로 오는 음8월二十八일부터 九月一일까지 3일간을 두고 그동리앞에잇는 한강반대사장에서 잠실리 각회대회를 성대히 개최한다는데 일반은 물론 신진역사들이 많이 참가하기를 바란다 한다.

**잠실리각회대회**

[시흥]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는 조선고래로 씨름에 유명한 역사를 가진 지방이다. 겸하여 금년에 시화년풍환을 만나 자축하는 의미에서 동민주최로 오는 음8월28일부터 9월1일까지 3일간을 두고 그동리앞에잇는 한강반대사장에서 잠실리 각회대회를 성대히개최한다는데 일반은 물론 신진역사들이 많이 참가하기를 바란다한다.

▶ 1933.11.15(2)6

**始興強盜**  
지난十三일 오전영시경에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방배리(始興郡新東面方背里)一五〇번지 이남순(李南順)의 집에 어떤 몸이 거대한 청년한명이 나타나서 협박을하고 금부치를 뺏어간일이잇어 방금각서에서 그범인을 엄탐하는중이라한다. 전기범인은 그때에 이남순의집에 침입하여 이남순의 모친을 협박하며 돈을내라고하므로 은비녀 두 개를내주었든바 적다고 투정을 하여 도금귀개한개를 주었는데 또다시 투정을하므로 견디다못하여 벽에걸린 시계 한개까지 때어주었었다고 한다. 범인은 이를건물가지고가며 경찰에고발하면 당장에 죽인다고 협박을한후 어디로인지 종적을 감추어버리었다고 한다.

**시흥강도**

지난13일 오전영시경에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방배리 150번지 이남순(30)의 집에 어떤 몸이 거대한 청년한명이 나타나서 협박을하고 금부치를 뺏어간일이잇어 방금각서에서 그범인을 엄탐하는중이라한다. 전기범인은 그때에 이남순의집에 침입하여 이남순의 모친을 협박하며 돈을내라고하므로 은비녀 두 개를내주었든바 적다고 투정을 하여 도금귀개한개를 주었는데 또다시 투정을하므로 견디다못하여 벽에걸린 시계 한개까지 때어주었었다고 한다. 범인은 이를건물가지고가며 경찰에고발하면 당장에 죽인다고 협박을한후 어디로인지 종적을 감추어버리었다고 한다.

▶ 1933.12.4(3)1

**夜學指導者 講習會開催**

【시흥】 시흥군 서면 始興郡西面 四上개소나되는 농촌진흥회에서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처처에서 야학을 시작하고 문맹을 퇴치할 목적으로 유지청년들이 한글과 간이 수자를 열심히 교수한다. 그러나 그 교수 방법만은 강습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 면장 윤지병씨는 춘삼 교장과 같이 지난 29일 오전 9시부터 서면 공보교 강당에서 면내 각 야학지도 청년들을 소집하고 강습회를 착수하였다 한다.

**야학지도자 강습회 개최**

(시흥)시흥군 서면 내에 40개소나되는 농촌진흥회에서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처처에서 야학을 시작하고 문맹을 퇴치할 목적으로 유지청년들이 한글과 간이 수자를 열심히 교수한다. 그러나 그 교수 방법만은 강습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 면장 윤지병씨는 춘삼 교장과 같이 지난 29일 오전 9시부터 서면 공보교 강당에서 면내 각 야학지도 청년들을 소집하고 강습회를 착수하였다 한다.

▶ 1933.12.26

**新東野菜組合 新동에서 창립**

【시흥】 시흥군 신동면(始興郡 新洞面) 이영섭(李英燮) 한 대흥(韓大欽) 이태훈(李太勳) 씨 등의 발기로 동면 반포리(盤浦里) 잠실리(蠶室里) 야채업자 70여인이 지난 23일 오후 2시 경에 잠실리 흥동학교(興東學校) 내에 회합하여 신동야채흥산조합(新東野菜興産組合)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영섭씨 사회 하에 취지 설명과 규약 통과가 이루어졌다.

다음과 같이 역원을 선거하였다는데 반포리 와 잠실리는 지리상 경성인접지로서 토질이 천연적으로 야 채 재배에 옥토일뿐더러 농업의 고심노력이 충분하여 경작 면적 1백 5십정보 미만에서 연산액 1십만원에 달하는 우량한 수입 성적을 나타내나 아직까지 지도 통제하는 기관이 없으므로 종자비료 등 구입과 생산액 판매 등에 대하여 자연 손 실과 불편이 많으므로 이 조합을 발기 한 것이라고 한다.

**신동야채조합**

신동에서 창립 시흥군 신동면 유지 이영섭 한대흥 이태훈씨 등의 발기로 동면 반포리, 잠실리 야채업자 70여인이 지난 23일 오후 2시 경에 잠실리 흥동학교 내에 회합하여 신동야채흥산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영섭씨 사회 하에 취지 설명과 규약

통과가 있는 후 다음과 같이 역원을 선거하였는데 반포리 와 잠실리는 지리상 경성인접지로서 토질이 천연적으로 야 채 재배에 옥토일뿐더러 농업의 고심노력이 충분하여 경작 면적 1백 5십정보 미만에서 연산액 1십만원에 달하는 우량한 수입 성적을 나타내나 아직까지 지도 통제하는 기관이 없으므로 종자비료 등 구입과 생산액 판매 등에 대하여 자연 손 실과 불편이 많으므로 이 조합을 발기 한 것이라고 한다.

▶ 1934.2.1(2)7

**青年 飲毒自殺**

【시흥】 영등포역(永登浦驛) 전 역에는 제일의원(第一醫院) 사무 원 최선경(崔善景)(22)은 지난 29일 오후 3시경 목욕을 갔다 온후 졸지에 고민하므로 음독한 줄 알게된 가족은 물론 동의원의 의사는 대경하여 응급치료를 하였으나 아무 효과가 없이 31일 오전 7시경에 드디어 사망하였다 한다. 그는 편모슬하에 아직 취임치 아니한 진실한 청년이라는데 무슨 사정으로 주검의 길을 밟았는지 유서 한 장 없이 음독이후 말까지 없었으며 먹은 독약조차 미상하고 원인도 조사중이라고 한다.

**청년 음독자살**

영등포역전에 있는 제일의원사무원 최선경(22)은 지난 29일 오후 3시경 목욕을 갔다 온후 졸지에 고민하므로 음독한 줄 알게된 가족은 물론 동의원의 의사는 대경하여 응급치료를 하였으나 아무 효과가 없이 31일 오전 7시경에 드디어 사망하였다 한다. 그는 편모슬하에 아직 취임치 아니한 진실한 청년이라는데 무슨 사정으로 주검의 길을 밟았는지 유서 한 장 없이 음독이후 말까지 없었으며 먹은 독약조차 미상하고 원인은 방금 조사중이라고 한다.

▶ 1934.7.20(5)4

**知興에 送電** 【시흥】

경북부군은 요지음 영등포일대의 발전에 따라 공업지대 화하야 현재 경성방직회사 제사공장 건축공사를 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터인데 이태까지 전기가 시설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여기든 지방유지 제씨는 맹렬한 운동으로 금번에 경성방직에서도 동시에 전기 가설의 필요를 느끼어 얼마전 부터 그 공사를 급히 하여 지난 15일부터 공사를 한다한다 이로써 시흥군 철도역에는 전부전기시설이 완성된다고 한다.

**시흥에 송전**

(시흥) 경북부 시흥역 부근은 요지음 영등포일대의 발전에 따라 공업지대 화하야 현재 경성방직회사 제사공장 건축공사를 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터인데 이태까지 전기가 시설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여기든 지방유지 제씨는 맹렬한 운동으로 금번에 경성방직에서도 동시에 전기 가설의 필요를 느끼어 얼마전 부터 그 공사를 급히 하여 지난 15일부터 공사를 한다한다 이로써 시흥군 철도역에는 전부전기시설이 완성된다고 한다.

▶ 1934.12.11

# 永登浦多年懸案인

## 地下道開鑿問題

### ◇또다시 주민간에 대두하여

## 公職者等連署로陳情

【시흥】시흥공업도시로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는 영등포(永登浦)에 10여년전부터 중대한안으로 있는 연구내지하도 개착문제는 이래五六차나 철도당국에 진정을 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아 일반인 당국의 무성의함을 항상 비

남하여오르던데 근래에 10개년 계속사업으로 명춘3월에 준공되는 제방공사를 비롯하여 한강치수공사, 경성영등포간 15간도로의 완성, 한강이노프의 가체(架橋) 등 경비 7백여만원의 관영공사가 착착 진행되는 한편에 중방(東紡)

동방(東紡)의 진출이 확정되고 기타 각종 유수한 공장들이 집중되는 실이 있게되자 인구가 격증하여 실로 놀랄 만치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영등포는 경부 경인 철도가 시가의 중앙을 관통하여 양쪽으로 쪼기여 있는 시가와 시가 당국에 연명으로 면세 신청을 하였든바 관계당국에서 세밀히 조사한 결과 총면적 291정보 인원수 232인 면세총액 1만9천4백55원으로 결정하였다. 특수면세 2만여원을 합하면 총 면세액을 실로 4만여원으로 전부과금액 15만원의 약 삼분지 일이나 된다한다.

### 영등포 다년 현안인 지하도 개착 문제

또다시 주민간에 대두하여 공직자 등 연서로 진정 (시흥) 시흥 공업도시로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는 영등포에 10여년 전부터 중대한안으로 있는 연구내 지하도 개착문제는 이래 5.6차나 철도 당국에 진정을 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아 일반은 당국의 무성의함을 항상 비난하여 오던 터인데 근래에 10개년 계속사업으로 명춘 3월에 준공되는 제방공사를 비롯하여 한강 치수공사, 경성 영등포간 15간의 도로의 완성, 한강인도

교의 가체 등 경비 7백여만원의 관영공사가 착착 진행되는 한편에 중방 동방의 진출이 확정되고 기타 각종 유수한 공장들이 집중 진출된다는 실이 있게되자 인구가 격증하여 실로 놀랄 만치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영등포는 경부 경인 철도가 시가의 중앙을 관통하여 양쪽으로 쪼기여 있는 시가와 시가 당국에 연명으로 면세 신청을 하였든바 관계당국에서 세밀히 조사한 결과 총면적 291정보 인원수 232인 면세총액 1만9천4백55원으로 결정하였다. 특수면세 2만여원을 합하면 총 면세액을 실로 4만여원으로 전부과금액 15만원의 약 삼분지 일이나 된다한다.

▶ 1934.12.25(5)4

**生活難 끝에 縊首하고自殺**

【시흥】 지난 22일 오전 11시에 북면시암리(北面新吉里) 방화정(放鶴亭) 수림속에 몽골매 여주는 시체를 통행인이 발견하고 경찰서에 고발한바 영등포경찰서(永登浦警察署)에서는 통구(通口)의사를 대동하고 검시한결과 자살이 분명하다는데 그는 영등포읍영등포리(永登浦邑永登浦里)五四번지에 사는 노수기(孫基鉉)씨(48)로서 전날밤 9시경에 술이 대취하여 자기집에 들어갔다가 빈궁에 쪼들리는 그의 처와 가정풍파가 있을후 그밤으로 나와서 죽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다.

**생활난 끝에 액수하고 자살**

(시흥) 지난 22일 오전 11경에 북면 신길리 수림속에 목을 매어 죽은 시체를 통행인이 발견하고 경찰서에 고발한바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통구(通口)의사를 대동하고 검시한 결과 자살이 분명하다는데 그는 영등포읍 영등포리 54번지에 사는 노수기(48)로서 전날밤 9시경에 술이 대취하여 자기 집에 들어갔다가 빈궁에 쪼들리는 그의 처와 가정 풍파가 잇은 후 그밤으로 나와서 죽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다.

▶ 1935.2.4(4)8

**九百餘貧民同情**

**兩氏의喜捨金으로**

【시흥】 수일정영등포(永登浦) 실업가 이창훈(李昌云)씨로부터 금 3백원 유지 김주연(金周演)씨로부터 금백원(百圓)을 각각 유대하고 이계당(二階堂) 영등포경찰서장을 방문하고 구년말에 추위와 굶주림에 해매는 불쌍한 빈민들에게 다만 쌀 한 되씩이라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동서에서는 감격에 넘쳐 즉시 관내 극빈자를 조사한바 구제를 요하는 호수가 200여에 인구가 900여인이나 되므로 백미 30가마니를 사서 나누어주기로 되었는데 예상외의 비곤지가 많다는 말을 들은 이창훈씨는 다시 지난 이월 오전 중에 50전 은화 200매 함께 백미를 경찰서에 가지고 와서 30가마니의 쌀로 200호나 나누어준다니 얼마식이나 차례로 가겠습니까 대단히 약소하지만 이 돈으로 고기라도 사서 적당히 분배하여 주십시오 하고 갔으므로 경찰서에서는 더욱 감격하여 동일 전후에 공민들을 전부 동서구내에 모아놓고 한 사람 앞에 백미 2대씩과 한호에 현금 50전을 각각 분배하여 주었는데 일반은 전기양씨의 동정심 깊은 것을 무수 칭찬한다 하며 특히 이창훈씨는 원래 빈곤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가진 고초를 당하고 겨우 오늘의 집안을 꾸은 군내에서 유일한 실업가로서 수해와 관서지방 풍수해 이 재민에게도 수삼백원 동정금을 하사하였고 구년 말 공민구제는 매년 년중행사로 계속하여 술선 실시하여온다고 한다.

가 2백오에 이고 九백여인이 다 되므로 백미 30가마니를 사서 나눠 주기로 되었는데 예상외에 빈곤자가 많다는 말을 들은 이창훈(李昌云)씨는 다시 지난 2일 오전 중에 50전 은화 2백매 함께 백미를 경찰서에 가지고 와서 30가마니의 쌀로 2백오나 나누어준다니 얼마식이나 차례로 가겠습니까 대단히 약소하지만 이 돈으로 고기라도 사서 적당히 분배하여 주십시오 하고 갔으므로 경찰서에서는 더욱 감격하여 동일 전후에 공민들을 전부 동서구내에 모아놓고 한 사람 앞에 백미 2대씩과 한호에 현금 50전을 각각 분배하여 주었는데 일반은 전기양씨의 동정심 깊은 것을 무수 칭찬한다 하며 특히 이창훈씨는 원래 빈곤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가진 고초를 당하고 겨우 오늘의 집안을 꾸은 군내에서 유일한 실업가로서 수해와 관서지방 풍수해 이 재민에게도 수삼백원 동정금을 하사하였고 구년 말 공민구제는 매년 년중행사로 계속하여 술선 실시하여온다고 한다.

**9백여 빈민 동정**

양씨의 회사금으로 (시흥) 수일정 영등포 실업가 이창훈씨로부터 금 3백원 유지 김주연 씨로부터 금 1백원을 각각 유대하고 이계당 영등포 경찰서장을 방문하고 구년 말에 추위와 굶주림에 해매는 불쌍한 빈민 동포에게 다만 쌀 한 되씩이라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동서에서는 감격에 넘쳐 즉시 관내 극빈자를 조사한바 구제를 요하는 호수가 200여에 인구가 900여인이나 되므로 백미 30가마니를 사서 나누어주기로 되었는데 예상외의 비곤지가 많다는 말을 들은 이창훈씨는 다시 지난 이월 오전 중에 50전 은화 200매 함께 백미를 경찰서에 가지고 와서 30가마니의 쌀로 200호나 나누어준다니 얼마식이나 차례로 가겠습니까 대단히 약소하지만 이 돈으로 고기라도 사서 적당히 분배하여 주십시오 하고 갔으므로 경찰서에서는 더욱 감격하여 동일 전후에 공민들을 전부 동서구내에 모아놓고 한 사람 앞에 백미 2대씩과 한호에 현금 50전을 각각 분배하여 주었는데 일반은 전기양씨의 동정심 깊은 것을 무수 칭찬한다 하며 특히 이창훈씨는 원래 빈곤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가진 고초를 당하고 겨우 오늘의 집안을 꾸은 군내에서 유일한 실업가로서 수해와 관서지방 풍수해 이 재민에게도 수삼백원 동정금을 하사하였고 구년 말 공민구제는 매년 년중행사로 계속하여 술선 실시하여온다고 한다.

▶ 1935.11.5(2)

**加害者내달라고**

**警察署에서 惹鬧**

永登浦獨子慘殺事件

(시흥) 30일 오후 10시40분 영등포역전 김구선술집 앞에서 마루보시 운송집 인부 박창문이와 싸우다가 매를 맞고 뇌일혈을 일으키어 현장에 졸도하여 무참히도 급사하여 버린 영등포역전 하월식당 점원으로 잇는 부천군 소사면 고척리 263번지 문민수는 대학병원에서 해부를 마친 후 시체를 그 유족에게 인도하여 매장케 하였는데 그가 생존하였을 때에는 늙은 부모와 작년 십일월에 결혼한 만삭된 애처 김씨를 부양하는 생활의 지주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독자여서 그의 부모와 애처의 애통하는 잠경은 잠자 눈을 없이는 볼 수 없는 터인데 지난 2일 정오에 그의 아버지 문중건 어머니 현성녀 그의 애처 김씨 등 세 유족은 영등포경찰서의 사법주임을 찾아 와서 대성통곡을 하며 가해자 박가를 내어주면 당장 에서 잡아먹겠다고 아단을 쳐서 사법계원들은 머리를 알타가 보냈다고 한다.

**가해자 내달라고 경찰서에서 아뢰**

노부모와 만삭된 애처 등  
영등포 독자참살사건  
(시흥) 30일 오후 10시40분 영등포역전 김구선술집 앞에서 마루보시 운송집 인부 박창문이와 싸우다가 매를 맞고 뇌일혈을 일으키어 현장에 졸도하여 무참히도 급사하여 버린 영등포역전 하월식당 점원으로 잇는 부천군 소사면 고척리 263번지 문민수는 대학병원에서 해부를 마친 후 시체를 그 유족에게 인도하여 매장케 하였는데 그가 생존하였을 때에는 늙은 부모와 작년 십일월에 결혼한 만삭된 애처 김씨를 부양하는 생활의 지주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독자여서 그의 부모와 애처의 애통하는 잠경은 잠자 눈을 없이는 볼 수 없는 터인데 지난 2일 정오에 그의 아버지 문중건 어머니 현성녀 그의 애처 김씨 등 세 유족은 영등포경찰서의 사법주임을 찾아 와서 대성통곡을 하며 가해자 박가를 내어주면 당장 에서 잡아먹겠다고 아단을 쳐서 사법계원들은 머리를 알타가 보냈다고 한다.



▶ 1935.11.20

**무면허 운전수트럭 조종타 격인**

(시흥) 24일 오후 6시 10분 영등포 증방 건축공사를 마친 다전공무소 모래 운반용트럭 경제7035호를 운전수 강기순(廣基順)이 모래를 부리고 정거하여둔 것을 조수로 있는 홍경유가 인부2인을 태워가 지고 한강제방아래 모래 채취장으로 향하여 조종하여 가다가 경전출장소 앞을 지날 즈음에 2,3 인의 친구들과 전기장소를 지나가든 읍내 당산리 170번지 경성연와 직공 박원선을 치워 너머트러서 인사불성이 된 것을 즉시 제일의원에 옮겨다가 응급치료를 하였으나 머리를 몹시 다치어 출혈이 많이 되었으므로 생명이 위독하다고 한다.

**無免許運轉手**  
**트럭操縦運転人**  
 [시흥] 二十四日 오후 六時十分 英等浦(永等浦) 宗芳(宗芳) 建築事務所(多田) 建築工事를 마친 다전공무소(多田) 運搬用트럭 經濟7035號를 운전수 姜基順(廣基順)이 모래를 부리고 정거하여둔 것을 조수로 있는 홍경유(洪景裕)가 인부2인을 태워가 지고 한강제방아래 모래채취장으로 향하여 조종하여 가다가 경전출장소(京電出張所) 앞을 지나가든 읍내 당산리(堂山里) 一號七十번지 景성연와(景成演와) 직공 박원선(朴元善)을 치워 너머트러서 인사불성이 된 것을 즉시 제일의원(第一醫院)에 옮겨다가 응급치료를 하였으나 머리를 몹시 다치어 출혈이 많이 되었으므로 생명이 위독하다고 한다.

▶ 1935.12.31(4)

**安山普校長**

**勤續十週年記念**

[영등포] 시흥군(始興郡) 안산공립보통학교(安山公普校) 교장림호장(林虎藏) 씨는 대정十四年四月에 취임한 이래 十여년간 만흔 아동교육에 진력하였을 뿐 아니라 지방발전에 공헌이 만었음을 고맙게 생각한 당시 유지 강정원 류기형의 제씨의 발기로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림교장 근속 10주년 기념축하회를 개최하고 씨의 공로를 감사하는 동시에 회중금시계를 증정하였다고 한다.

**안산보교장 근속 10주년 기념**

(영등포) 시흥군 안산공립보통학교 교장 림호장 씨는 대정14년 4월에 취임한 이래 10여년간 만흔 아동교육에 진력하였을 뿐 아니라 지방발전에 상에도 공헌이 만었음을 고맙게 생각한 당시 유지 강정원 류기형의 제씨의 발기로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림교장 근속 10주년 기념축하회를 개최하고 씨의 공로를 감사하는 동시에 회중금시계를 증정 하였다고 한다.



▶ 1936.5.13(4)4

**始興公普校**  
**學年延長運動**

오래동안 지방주민들이 열망하여오는 시흥공립보통학교 학년연장문제는 경비문제를 구실로 당국이 쉽사리 실현하여줄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하여 군민의 불평이 자못 높아 오는 터인데 지난 6월에 유지 조두희, 김철운, 강신타, 김우균, 송현규, 안일순의 제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강구코저 회합하여 여러 가지 방침을 협의한 결과 종래에 적립하여잇는 학년연장자금을 천원외에 또다시 즉석에서 2천5백여원의 기부금을 얻어 가지고 다시 당국에 촉진운동을 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시흥공보교 학년연장 운동**

오래동안 지방주민들이 열망하여오는 시흥공립보통학교 학년연장문제는 경비문제를 구실로 당국이 쉽사리 실현하여줄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하여 군민의 불평이 자못 높아 오는 터인데 지난 6월에 유지 조두희, 김철운, 강신타, 김우균, 송현규, 안일순의 제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강구코저 회합하여 여러 가지 방침을 협의한 결과 종래에 적립하여잇는 학년연장자금을 천원외에 또다시 즉석에서 2천5백여원의 기부금을 얻어 가지고 다시 당국에 촉진운동을 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 1936.5.20

**영등포피혁 기관실에 대한 기계의 발열에서 발화된 뜻**

손해액 약 6만여원  
10일 오후 9시 10분 경 영등포 당산정조선피혁주식회사 기관실 아궁이에서 발화가 되어 영등포경찰서원 영등포소방대원이 총출동하고 경성소방대원까지 응원으로 11시경에야 겨우 진화하였으나 기관실과 공장 약 사백여 평이 전소되었다. 원인은 보일러의 발열에서 난 듯 하나 영등포에서는 화공 20명을 불러다 엄중취조중이라 하며 손해는 약 6만원 인데 신호일본해상 동양의 제 회사에 4억9천4백여 원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한다.

**永登浦皮革**  
**機關室에 大火**

기계실 발열에서 발화된 뜻  
損害額約六萬餘圓

영등포 당산정조선피혁주식회사 기관실 아궁이에서 발화가 되어 영등포경찰서원 영등포소방대원이 총출동하고 경성소방대원까지 응원으로 11시경에야 겨우 진화하였으나 기관실과 공장 약 사백여 평이 전소되었다. 원인은 보일러의 발열에서 난 듯 하나 영등포에서는 화공 20명을 불러다 엄중취조중이라 하며 손해는 약 6만원 인데 신호일본해상 동양의 제 회사에 4억9천4백여 원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한다.

▶ 1937.6.19조(4)12

**始興畜市出願**

【永登浦】시흥군동면(始興郡東面)에서는 영등포 시장폐지와 장차 동대문(東大門) 가축시장의 폐지설이 잇음을 기회로 알뜰히 때지음이 잇음을 기회로 알뜰히 로 강남발전애 한몫을 두게 되어 유지의 열망과 영등포시장제지의 열 성추선아래 지난9월 이에 시흥가축시장(始興畜市場)허가원을 도당국에 제출하였는데 일반은 이에 허가잇기를 근간 열망되기를 대를 가지고 잇다고 한다.

**시흥축시출원**

(영등포)시흥군동면에서는 영등포 시장폐지와 장차 동대문 가축시장의 폐지설이 잇음을 기회로 알뜰히로 강남발전애 한몫을 두게되어 유지의 열망과 당국직원제시의 열성추선아래 지난9월 이에 시흥가축시장 허가원을 도당국에 제출하였는데 일반은 이에 허가잇기를 근간 열망되기를 가지고 잇다고 한다.

▶ 1937.6.19(4)

이불에서 돈 훔친 절도범 피체

영등포서 서 취조 중 (영등포) 시내 영등포정 423번지 전 전성일은 15일 부산에서 경영하여오 든 음식점을 고산모에게 양도하여 그 대금 1070원을 가지고 시내 원정을 걸쳐 집을 구하였으나 합당한 자리를 얻지 못하고 전기 주소인 소전의 집을 세로 얻게되어 그 세금 120원을 지불하고 잔금 1천여원이 든 지갑을 처 도모에게 주었든바 도모는 이것을 이불 속에다 너코 자게되었든바 아침에 일어나 처는 밥을 지러나가고 남편 정일이는 이것에 인식도 없이 이불을 들들 맡아 뒤에다가 내어 열었던 바 여기에 석겨 뒤길에 그 지갑이 떨어지게 되었섯는데 나중 이것을 알고 차컷으나 발견치 못하게 되어 곳 영등포 경찰서에 제출하였든바 동서에서는 곳 전원을 출동시켜 그 집을 중심으로 수색을 하였든바 지난 17일 오전 아홉 시경에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범인은 시내 영등포정 신촌 256번지 노

이불에서 돈 훔친

窃盜犯被逮

永登浦署서取調中

【永登浦】 시내 영등포정(永登浦町) 423번지 전전정일(前田正一)은 15일 부산에서 경영하여오든 음식점을 고산(高山) 모에게 양도하여 그대금 1千7百十원을 가지고 시내 원정(元町)을 걸쳐 집을 구하였으나 합당한 자리를 얻지 못하고 전기 주소인 소전(小田)의 집을 세로 얻게되어 그세금 1百二十원을 지불하고 잔금 1千餘원이 든 지갑을 처도모에게 주었든바 도모는 이것을 이불 속에다 너코 자게되었든바 아침에 일어나 처는 밥을 지러나가고 남편 정일이는 이것에 인식도 없이 이불을 들들 맡아 뒤에다가 내어 열었든바 여기에 석겨

뒤길에 그 지갑이 떨어지게 되었섯는데 나중 이것을 알고 차컷으나 발견치 못하게 되어 곳 영등포 경찰서(永登浦署)에 제출하였든바 동서에서는 곳 전원을 출동시켜 그 집을 중심으로 수색을 하였든바 지난 17일 오전 아홉 시경에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범인은 시내 영등포정(永登浦町) 신촌(新村) 2百56번지 로동자 이상선(李相善)의 처이공임(李公任)이 가이것을 얻어가지고 자기집안방 장롱속에 이것을 차게되었든바 돈이 부족됨으로 동서에서는 이에 추궁하여 수색중이라고 한다.

동자 이상선의 처 이공임(25)이가 이것을 얻어 가지고 자기 집 안방 장롱 속에 난 것을 찾게 되었든바 돈이 부족됨으로 동서에서는 이에 추궁하여 수색중이라고 한다.

▶ 1937.6.20(4)7

移種發育의 理想

【永登浦】 영등포정(永登浦町) 423번지 전전정일(前田正一)은 15일 부산에서 경영하여오든 음식점을 고산(高山) 모에게 양도하여 그대금 1千7百十원을 가지고 시내 원정(元町)을 걸쳐 집을 구하였으나 합당한 자리를 얻지 못하고 전기 주소인 소전(小田)의 집을 세로 얻게되어 그세금 1百二十원을 지불하고 잔금 1千餘원이 든 지갑을 처도모에게 주었든바 도모는 이것을 이불 속에다 너코 자게되었든바 아침에 일어나 처는 밥을 지러나가고 남편 정일이는 이것에 인식도 없이 이불을 들들 맡아 뒤에다가 내어 열었든바 여기에 석겨 뒤길에 그 지갑이 떨어지게 되었섯는데 나중 이것을 알고 차컷으나 발견치 못하게 되어 곳 영등포 경찰서에 제출하였든바 동서에서는 곳 전원을 출동시켜 그 집을 중심으로 수색을 하였든바 지난 17일 오전 아홉 시경에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범인은 시내 영등포정(永登浦町) 신촌(新村) 2百56번지 로동자 이상선(李相善)의 처이공임(李公任)이 가이것을 얻어가지고 자기집안방 장롱속에 이것을 차게되었든바 돈이 부족됨으로 동서에서는 이에 추궁하여 수색중이라고 한다.

시흥 농촌에 상보

농형은 풍작예상  
이앙발육이 극양호  
(영등포) 년내로 기후불순 관계로 농작물의 흉작이 계속 되어 시흥 수천 농민들은 고난한 생활상을 더한층 어지럽게 하여, 결국 농촌을 피폐하게 하였거니와 본래 순박한 농민들은 또 다시 용기를 내어 가지고 팔을 걷고, 금년에 나 하고 크다란 기대를 갖이고 모내기과 기타 준비에 착수하여 오던 바 기쁘게도 순조로운 일기는 비를 주게되어 그 발육상황이 극히 양호하여 일반 농민들은 반가웁게 힘을 합하여 모내기에 힘써오는 것으로 지난 18일 현재로 시흥군 신동면의 9할 5푼 이상을 비롯하여 전군서 평균 8할 이상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하며 앞으로 수일내로는 거의 팔모에 성적을 보이리라고 한다.

▶ 1937.6.22조(8)7

**始興麥作大興**  
 【永登浦】始興郡은 八個面을 가진 純農村으로서 前年凶年으로 인하여 一般農民들은 더욱 困窮에 처하고 不徹晝夜 그 耕作에 힘써오던 터 더욱 今年麥作은 前年에 比하여 十一割增 本年에 比하여 四割五分 增加하였으므로 一般農民들은 큰 기쁨에 잇다고 한다

**시흥맥작대흥**

(영등포) 시흥군은 팔개면을 가진 순농촌으로서 전년 흉년으로 인하여 일반농민들은 더욱 곤궁에 처하여 잇는바 금년에 이르자 일반농민들은 다시 그 희망에 포부를 가지고 불철주야 그 경작에 힘써오던 터 더욱 금년 맥작은 전년에 비하여 십일할증 평년에 비하여 사할오분증가하였으므로 일반농민들은 큰 기쁨에 잇다고 한다.

▶ 1937.6.24(4)

**自作農逐年減少**  
**小作日傭은激增**  
**始興農村의不況**

【永登浦】시흥군(始興郡)은 본 대농업지대로서 郡境內으로부터 十餘年전 개량을 지도하여 온 터 많은 발전과 개량을 보게 되어 날로 그 성과를 이루고 잇는 중이나 작년에 이르러 전년인 소화十年의 그것보다 농가후수가 四백여호의 감소를 보인 것은 통계가 말하

는 이상한 현상의 하나이라 할것이다. 더구나 자작농에 잇서 소화十年보다 十一年에 백여호가 감소된 것인데 반하여 자작결소작과 로동자의 날짜군이 부쩍 늘어 잇는 것은 농가불황이라고 볼수 잇다고 한다.

**자작농축년감소**

소작 일용은 격증

▶ 1937.6.24(7)

# 物價高에 부다끼는

## 工場勞働者生活難

### 최저 생활유지조차 말이 못되어

## 永登浦勞働層에憂鬱

큰돈요지음 그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짝이 없다고 한다.

【永登浦】영등포의 공업은 최근애와서 비약적 발전을 하고있다 고 매우 낙관하고있는것이 일반의 관측이나 이 발전 그들 속에서 허덕이는 노동자의 생활을 보면 일용할가름 날로 등귀하고있는 오늘에 있어 그들의 품사는 불과五十전내외로 최저생활보장도 안되는터로 곤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노동시간은 최고十二시간이상의 과중한 작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해매고있는 노동자수는 물론 一만여명으로 남자층은 五十전내외 여공은 四十전내외에 지나지 않는터로 약간의 이상 말이 못되더라도 여기애 불과하니 물가가 최고정점으로 오

### 물가고에 부다끼는 공장 노동자생활난

최저 생활유지조차 말이 못되어  
영등포 노동층에 우울  
(영등포) 영등포의 공업은 최근에 와서 비약적 발전을 하고있다고 매우 낙관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의 관측이나 이 발전 그들 속에서 허덕이는 노동자의 생활을 보면 일용할가름 날로 등귀하고있는 오늘

에 있어 그들의 품사는 불과 50전 내외로 최저생활보장도 안되는 터로 곤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노동시간은 최고 십이시간이상의 과중한 작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해매고있는 노동자수는 무려 1만여명으로 남자 장년은 50전 내외 여공은 40전 내외에 지나지 않는 터로 약간 그 이상 받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불과하니 물가가 최고정점으로 오르는 요즘 그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짝이 없다고 한다.

▶ 1937.7.27(2)

## 永登浦에 府營市場

조선인 중심지 一천평에 착수

### 十月에 竣工하여 開市

(Vertical text columns describing the market project details)

**영등포에 부영시장**

조선인 중심지 1천 평에 착수  
10월에 준공하여 개시  
경성부 산업과에서는 부내 영등포에 1만5060원의 예산으로 조선인 중심의 시장을 만들 고져 일찍부터 그 계획을 진행 중이던 바, 드디어 지난 23일 입찰까지 마치고 근일중 공사에 착수하기로 되었다 한다. 동시장의 위치는 영등포구청 39번지로 면적은 약 1천평 가량이라는데 시장의 주위에는 3동 15개 점포를 만들고 중앙에는 60평 가량의 입매장을 만들 것이라는데 오는 10월 초순에 준공하여 즉시 개시 할 터이라 한다.

▶ 1937.9.4(2)

## 始興時局講演

(Vertical text columns describing the lecture event)

**시흥시국강연**

(영등포) 복지사변이 발발한 이래 사건의 확대됨을 따라 시흥군에서는 시국인식의 고저와 중후성원의 강화를 도하기 위하여 제 이차로 금번의 군내 각 문묘유림시국인식강연회를 개최하고 지난 일일 오후 한시 관전에는 최종선, 안산에는 전재현, 시흥에는 능천 군수와 김기항 사회주사가 파송 되었다는데 각처에서 많은 감동을 주었다 하며 특히 시흥문묘에는 45명 모임으로 강연요지에 의문심을 분발케되어 직원 성기철씨 등의로 현장에 가지고 온 돈을 다내어 현금키로 하여 모은 것이 10원이라하며 이로 하로 점심값준비금을 바치게되었다하며 문묘사당에 매식 일일 15일에 선언문 선고식을 거행하기로 되었다하며 다시 제 삼차 계획으로 삼일부터 육일까지 제 1반으로 군수, 제 2반에 내무주임이 각 면 청년단체와 부인단체에 시국인식 순회강연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 1937.12.1(8)

# 貸地料十割引上

## 借地人等不納決議

### 始興良才里借地人結束

【永倉浦】 시내서빙고역전(西水庫驛前) 박모(朴某) 시흥군 신동면 양재리(始興郡新東面良才里)에 대지(貸地) 몇천평을 금년에 처음으로 사게 되었다는데 동래에 정수한 도로는 공평치 못하다는 이유로 가장 공정히 간평하였다고하여 일반 작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최소 2할 고, 최고 10할까지 늘리어 이는 공정이 아니라 당년에 금리를 뽑자는 데 지내지 않는 수단이라 하여 일반 작인들은 크게 분개하고 전혀 불

남할의사를 가지고있다는데 앞으로 저하개정이 없으면 동맹을 하는 동시 소작위원회에까지 진정을 상달하리라고 한다

#### 대지로 10할 인상

차지인등불납결의  
시흥 양재리 차지인 결속  
(영동포) 시내서빙고역전 박모 시흥군 신동면 양재리에 대지 몇 천평을 금년에 처음으로 사게 되었다는데 동래에 정수한 도로는 공평치 못하다는 이유로 가장 공정히 간평하였다고하

아 일반작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최소 2할고, 최고 10할까지 늘리어 이는 공정이 아니라 당년에 금리를 뽑자는데 지내지 않는 수단이라하여 일반 작인들은 크게 분개하고 전혀 불납 할 의사를 가지고있다는데 앞으로 저하개정이 없으면 동맹을 하는 동시 소작위원회에까지 진정을 상달하리라고 한다.





▶ 1939.5.16(2)6

## 始興強盜遂速捕

### 賭博米畝의 調遣이 犯行 勳機

## 龍山署에서 取調中

시흥군 신동면 염포리 염택의 집  
을 비롯하여 고교, 대평 집을 침입한 대담무쌍한 강도는  
발생이후 영등포경찰서는 물론, 용산서와 기타부내 각  
경찰서에서 범인 체포에 맹 활동을 개시한바 드디어 4  
일만에 체포되고 말았다. 14일 오후 9시경 부내 삼각지  
파출소순사 2명이 한강동 13번지 앞을 순찰할 때 수상한  
청년이 지나가므로 불심 심문을 한 결과 현장에서 금시  
계가 나오고 그 후에 그의 유일한 증거인 왼편 손 엄지  
손가락이 잘라진 점을 발견하고 즉시 본서로 알리어 취  
조한 결과 강도범을 체포 한 것이다. 그는 이태원정 388  
번지 장은산으로 철공직공 노동을 하는데 3년전부터 도  
박에 발을 들인 후 돈에 굶주리고 채금 ■■심■■고 하여  
그와 같이 강도질을 하게 된 것이라 한다. 그에 따라 앞  
으로 여죄가 상당들어날 모양.

시흥군 신동면 염포리 염택의 집  
을 비롯하여 고교, 대평 집을 침입한 대담무쌍한 강도는  
발생이후 영등포경찰서는 물론, 용산서와 기타부내 각  
경찰서에서 범인 체포에 맹 활동을 개시한바 드디어 4  
일만에 체포되고 말았다. 14일 오후 9시경 부내 삼각지  
파출소순사 2명이 한강동 13번지 앞을 순찰할 때 수상한  
청년이 지나가므로 불심 심문을 한 결과 현장에서 금시  
계가 나오고 그 후에 그의 유일한 증거인 왼편 손 엄지  
손가락이 잘라진 점을 발견하고 즉시 본서로 알리어 취  
조한 결과 강도범을 체포 한 것이다. 그는 이태원정 388  
번지 장은산으로 철공직공 노동을 하는데 3년전부터 도  
박에 발을 들인 후 돈에 굶주리고 채금 ■■심■■고 하여  
그와 같이 강도질을 하게 된 것이라 한다. 그에 따라 앞  
으로 여죄가 상당들어날 모양.

### 시흥강도수체포 도박미천의 조망이 범행동기

용산서에서 취조 중  
지난 10일밤 11시 반경 시흥군 신동면 염포리 염택의 집  
을 비롯하여 고교, 대평 집을 침입한 대담무쌍한 강도는  
발생이후 영등포경찰서는 물론, 용산서와 기타부내 각  
경찰서에서 범인 체포에 맹 활동을 개시한바 드디어 4  
일만에 체포되고 말았다. 14일 오후 9시경 부내 삼각지  
파출소순사 2명이 한강동 13번지 앞을 순찰할 때 수상한  
청년이 지나가므로 불심 심문을 한 결과 현장에서 금시  
계가 나오고 그 후에 그의 유일한 증거인 왼편 손 엄지  
손가락이 잘라진 점을 발견하고 즉시 본서로 알리어 취  
조한 결과 강도범을 체포 한 것이다. 그는 이태원정 388  
번지 장은산으로 철공직공 노동을 하는데 3년전부터 도  
박에 발을 들인 후 돈에 굶주리고 채금 ■■심■■고 하여  
그와 같이 강도질을 하게 된 것이라 한다. 그에 따라 앞  
으로 여죄가 상당들어날 모양.

▶ 1939.10.27조(4)2

## 始興郡米穀統制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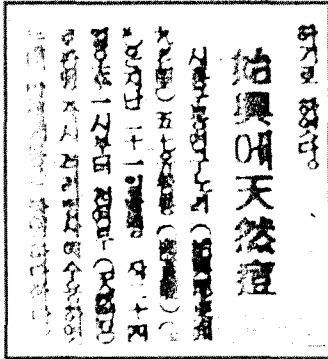
### 總代會 開會

시흥군 미곡 통제조합 총대회  
시흥군청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소회 15년도 수지예산은  
1만2천5백9십6원 이다.

### 시흥군 미곡통제조

총대회의를 개최  
(시흥) 시흥군 미곡 통제조합  
총대회의는 25일 오후 2시부터  
시흥군청회의실에서 개최되었  
는데 소회 15년도 수지예산은  
1만2천5백9십6원 이다.

▶ 1940.1.26(2)5



**시흥에 천연두**

시흥군 동면 구노리 57 유황홍은 지난 21일 발병 작 24일 오후 1시부터 천연두로 판명 즉시 격리병자에 수용하였는데 발생계통은 불명하다한다.

▶ 1940.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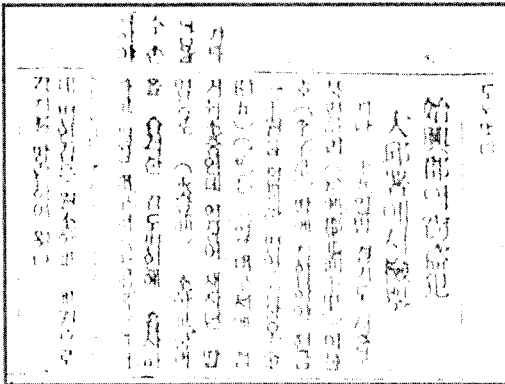
永登浦의 各工場  
平常대로 復舊  
十六日午後八時부터

【永登浦】기보=금번의 강설로 말미암아 송전고장 배전제한으로 관계로 영등포 각 공장은 휴업상태이었던바 작일 오후 8시부터 정상회복되었다.

**영등포의 각 공장**

평상대로 복구  
16일 오후 8시부터  
(영등포) 기보=금번의 강설로 말미암아 송전고장 배전 제한 등 관계로 영등포 각 공장은 휴업상태이었던 바 작일 오후 8시부터 정상회복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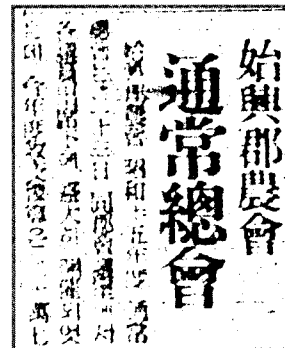
▶ 1940.3.5조(2)5



**시흥군의 절도범 대구서 검거**

지난 29일밤 경기도 시흥군 북면 하리 이불호방에 침입하여 현금 1천원을 절취한 범인 김상오는 3일 대구서에 검거 취조중인데 인상이 재작년 말 영등포 소학교장 댁을 습격한 강도범인에 흡사하다고 4일 대구서에서 경성구내 각서에서 조회가 잇섯는데 범인 김은 원소학교 교원으로 각지를 방랑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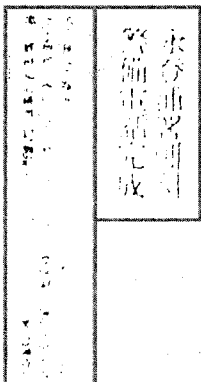
▶ 1940.3.30(8)



**시흥군 농회**

통상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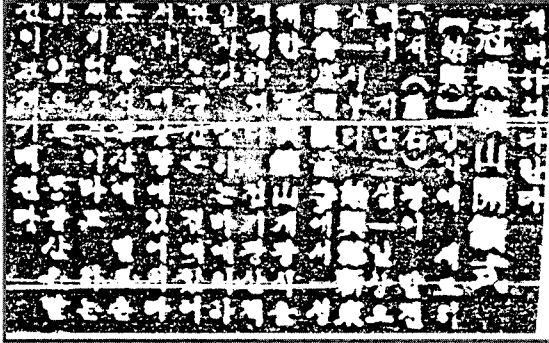
▶ 1940.4.20



**영등포에서 경비 전화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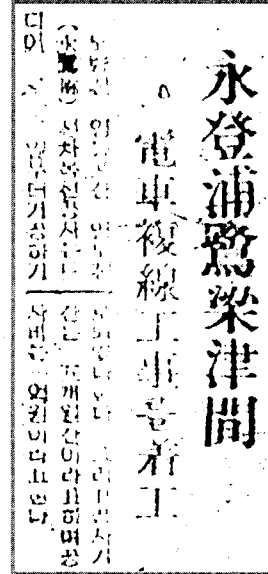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작년이래 각 관내 각 주재소 경비전화 가설을 위하여 공사 진행 중이던 바 작 18일로써 그 완성을 보게되었다. 이제는 어느 주재소에나 경비전화 없는 곳은 없게되었으나 이로써 경비전화의 모퉁이를 기하리라 한다.

▶ 1951.1.3



관흥광산 개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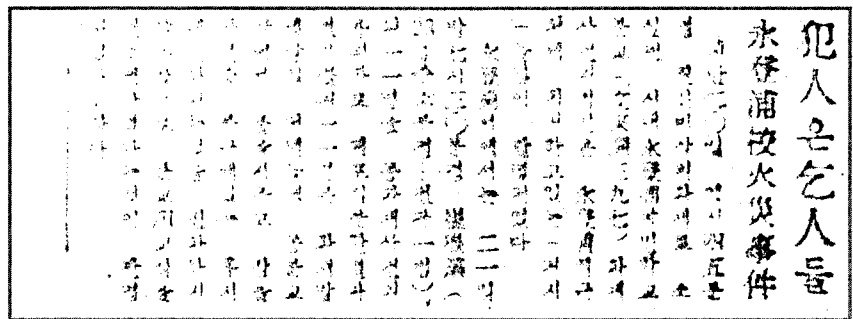
▶ 1950.5.22(2)5



**영등포 노량진간 전차복선공사를 착공**

노량진 영등포간 전차복선공사는 드디어 21일부터 기공하기로 되었다한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5개월간이라고 하며 공사비는 2억 원 이라고 한다.

▶ 1959. 9. 22(3)9



**영등포교 화재사건 범인은 결인들**

지난 20일 10시 45분 경 신원미상의 화재로 소실된 시내 영등포(永登浦)초등학교 분교 화재 사건의 범인은 영등포역 근처에 근거하고 있는 「거지」들이 판명되었다. 영등포서에서는 21일 밤 7시 30분 경 최■■(23 전과 일범)의 11명을 동 화재사건의 용의자로 체포 심문한 결과 전기 최 외 11명은 화재발생당일 저녁 늦게 동 분교장에서 불을 피우고 짐을 자던 중 부근에 있는 휴지에 인화되는 것을 진화하지 않은 탓으로 분교 4 교실을 전소케 하였다가 판명되었다고 한다.